

세계관은 삶이다

개정판

최용준

목차

개정판을 쓰게 된 동기

머리말

1부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01 세계관은 삶이다

02 창조_ 성경적 세계관과 삶의 출발점

2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03 타락_ 우상을 만드는 공장

04 구속_ 우주적인 회복

3부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다.

05 완성_ 영광스러운 비전

06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참고문헌

개정판을 쓰게 된 동기

‘세계관은 삶이다’가 출판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필자는 그동안 이 책을 교재로 한동대에서 계속 강의해 오면서 나름대로 수정 보완한 개정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특별히 보다 시각적인 자료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추가하였고 CUP 출판사에서도 기꺼이 동의해 주어 이번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어 감사드린다.

이 책이 계속해서 보다 일관성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살아가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남송리에서

저자

머리말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생각을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는 ‘세계관’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점은 선천적으로 갖는 것이라기보다는 후천적이며 따라서 계속해서 형성되는 하나의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관에 대해 근본적인 고찰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 자신의 생각과 삶에 대해 보다 깊은 성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우리는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 채 인생을 산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마침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민감하게 자신의 세계관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실제로 비그리스도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서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가져야 할 세계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덧붙여 가능한 다른 세계관들과의 비교를 통해 어떤 세계관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보여 주고자 한다. 결국 세계관과 삶은 분리될 수 없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계를 바로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네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_기원의 문제

모든 세계관의 첫 관심사는 만물의 기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서양의 희랍 철학이 그러했고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에서는 주로 창조와 진화적 세계관을 중점적으로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다루어 보겠다.

둘째,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_악의 문제

이 세상은 무엇인가 정상이 아니라는 보편적인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낙원이 아니라 원치 않는 악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 뿐만 아니라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셋째,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_궁극적 해결의 문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지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당연히 그 다음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분명 확신 가운데 사는 삶이 될 것이다.

넷째,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_최종 완성의 문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최후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종말의 모습에 대해 어느 정도 바로 알고 예측할 수 있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자세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분명 다를 것이다.

본서는 필자가 1999년부터 캐나다 밴쿠버의 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에서 강의한 내용을 기초로 집필한 것이며 2011년부터 한동대에서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개정판을 편집, 출판해 주신 CUP께 또한 감사드린다. 이 작은 책자가 세상을 바로 보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며,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에게는 근본적인 성찰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란다. 나아가 세계관이 단지 이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이해하고, 그 모든 영역들이 성경적 관점에서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브뤼셀에서

저자

1부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For from Him are all things

01 세계관은 삶이다

세계관은 삶의 비전을 보여 준다

네덜란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물은 가장 친한 친구인 동시에 가장 무서운 적이다.” 필자는 10년 가까이 네덜란드에 체류하면서 이 속담의 의미를 피부 깊숙이 느꼈다.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땅이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물 관리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 네덜란드는 온 사방에 바다, 호수, 강 그리고 운하가 있어 일단 물과 친숙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네덜란드 아이들은 네 살만 되면 무조건 수영을 배운다. 갑자기 물에 빠져도 언제나 헤엄쳐 나올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1953년 남서부의 대홍수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뼈아픈 경험을 했기에 네덜란드는 철저한 공사를 통해 서남쪽의 바다를 막는 거대한 ‘델타 프로젝트Deltawerken’를 완성했다(그림 1). 그리고 북쪽 바다도 막아 4차선 고속도로 Afsluïjtdijk를 건설해 짠물의 바다를 민물의 호수인 아이슬미어 IJsselmeer로 만들었으며(그림 2), 동시에 전국을 연결하는 운하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의 세계관에 있어 물은 친한 ‘친구’인 동시에 항상 경계해야 할 ‘적’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델타 프로젝트

그림 2 아프슬라위트데이크 Afsluïjtdijk

다른 예로는 언젠가 필자가 영국 런던의 히드로(Heathrow) 공항에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다음과 같은 광고를 보았다. “How the world sees you depends on how you see the world.”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가는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있다.) 필자는 이것이 매우 세계관적인 광고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미국의 유명한 릭 워렌(Rick Warren, 1954~) 목사는 *Purpose-Driven Life*(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e way you see your life

shapes your life." (당신이 당신의 삶을 보는 방식이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¹

가령 히드로 공항의 광고는 이런 그림도 보여주고 있었다(그림 3). 같은 사람의 머리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의 헤어스타일이라고 해석하고 다른 사람은 군인(soldier)으로 이해하며 심지어 어떤 분들은 생존자(survivor)로 보기도 한다. 아마도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 한국인은 이 분을 스님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사람을 보고 이해하는 것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3

같은 광고인데 이런 그림도 있었다. 같은 그림을 두고 해석이 정반대인 것이다(그림 4). 가령 피사(Pisa)의 사탑을 보면서 가장 완벽한 작품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장 불완전한 건축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얼굴과 팔이 없는 조각품을 보면서도 가장 완전한 예술품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장 불완전한 작품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인다. 마치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모두 빨간 색으로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착용하면 온 세상은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다.

그림 4

이처럼 본능대로 사는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그들이 자라고 영향 받은 환경에서 형성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생각은 보다 엄밀히 말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이것을 폭넓은 의미로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의식하든 하지 않던 간에 우리 모두는 각자 살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결단하지 않을 수 없다.

¹ Rick Warren, *Purpose-Driven Life*, (Grand Rapids: Zondervan, 2013), 44.

필자는 2012년 9월 9일자 ‘오늘의 양식(Our Daily Bread)’을 읽으며 매우 통찰력 있는 내용을 발견한 적이 있다. 말의 눈이 덮이는 마스크를 보여주면서 왜 이렇게 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그림 5). 이것은 원래 말을 공격하는 파리로부터 말의 눈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말이 앞을 보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진 이 마스크는 올바른 세계관을 우리가 가질 때 잘못된 세계관의 공격으로부터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이 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더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오늘의 양식은 이렇게 결론짓고 있다.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과 성경에 대한 진리 모두를 알게 된다(When we see the world through the filter of the Word, we learn the truth about both.)”²

그림 5

같은 공간에서 살아도 전혀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서부개척 당시, 원주민들에게는 땅을 정복한다거나 판매한다는 개념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땅이 자신들의 생활 터전이고 땅과 하나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척자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땅은 정복 대상이었고 따라서 원주민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했다(그림 6). 이와 같이 세계관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전혀 다른 두 세계관이 부딪칠 경우 심각한 문제를 낳기도 한다.

그림 6

세상에는 세계관과 인생관을 매우 일관성 있게 정립하여 그 세계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혼돈스러운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의 세계관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세계관이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관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되는 동시에 삶을 이끌고 가는 하나의 동인動因이자 비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² odb.org/2012/09/09/lesson-of-the-horse-mask

그런데 이러한 세계관이나 삶의 원리들은 대부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배워서 습득하게 된다. 사람이 선천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건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의미 있게 사용하는가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 어떻게 서 있느냐가 결정하며, 그러한 세계관은 그가 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체계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세계관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세계관이 왜 옳은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관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제임스 사이어 (James W. Sire, 1933~2018)의 말처럼 “우리가 진정 지적으로 충분히 의식적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세계관도 알고 있어야 한다. 수많은 세계관들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의 세계관이고 왜 옳은지도 말이다.”³

왜냐하면 자신의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들을 검토하지 않고 사는 삶unexamined life은 자칫 헛된 삶으로 끝나기 쉽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던 세계관이 결국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고 자신의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의 종말을 그린 독일 영화 <몰락>*Der Untergang*에서 나치즘을 절대 진리로 믿으며 불변하는 세계관으로 숭배했던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와 그의 심복들은 전쟁에서 연합군에게 패하자 결국 절망감에 휩싸이게 된다. 서쪽에서는 연합군이, 동쪽에서는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베를린을 포위해 들어오자 지하 병커에 있던 히틀러의 참모들이 안절부절못하면서 한 명 두 명 절망 가운데 목숨을 끊는다.⁴ 이처럼 세계관은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지도자가 잘못된 세계관을 가질 경우 그가 속한 공

³ James W. Sire, *The Universe Next Door: A Basic World View Catalog*,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88), 2nd ed. 1. “For any of us to be fully conscious intellectually we should not only be able to detect the world views of others but be aware of our own – why it is ours and why in light of so many options we think it is true.”

⁴ 필자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베를린을 포위해 들어오자 지하 병커에 있던 히틀러의 심복들이 안절부절못하면서 히틀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Herr Fueher, fuehren Sie uns!(각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를 반복해서 외치면서 울먹이다 결국 히틀러의 자결을 본받아 한 명 두 명

동체 모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이 영화는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그림 7).

그림 7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세계관’이라는 단어는 제일 먼저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와 같은 독일의 관념론 철학자들에 의해 ‘세계에 대한 직관’(*Weltanschauung*)이라는 단어로 쓰였으며, 그 후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 1820~1895)와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 1833~1911) 그리고 낭만주의 철학자들에 의해 보편화되었다.⁵

하지만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와 헤르만 도여베르트(Herman Dooyeweerd, 1894~1977)와 같은 네덜란드의 신칼빈주의 학자들은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다 성경적 의미로 적용하여 ‘세계 및 인생관’(*wereld- en levensbeschouw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이 세상은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비기독교적 세계관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보았다.⁶ 이와 유사한 낱말들로는 ‘삶에 대한 조망’(life perspective), ‘고백적인 비전’ (confessional vision) 또는 ‘한 사람의 삶의 원칙들 또는 이상들’(the whole of a person's principles or ideals) 등이 있다. 세계관에 대한 보다 심층적 연구를 통해 성경적 조망을 확립하는데 기여한 학자들은 대부분 이 네덜란드 신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반면에 산스크리트어로는 세계를 ‘*loka*’라고 하며 한자로 ‘세’(世)는 시간을 ‘계’(界)는 공간을 의미한

스스로 절망 가운데 목숨을 끊던 장면이다. 트레일러는 www.youtube.com/watch?v=U7AGbgzfXis 참조.

⁵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광식, “세계관의 개념사”,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 (서울: CUP, 1998), 12-17 참고.

⁶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양승훈, 『기독교적 세계관: 세계와 삶에 대한 성경적 조망』 (서울: CUP, 1999), 36-38 참고.

다. 따라서 동양적 의미에서 세계관이란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된 세계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관은 삶의 소명과 방향을 결정한다.

세계관에 대해 보다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은 북미 대륙의 복음주의적 신학자와 기독교 철학자들이다. 그들이 세계관에 대해 정의한 것들 중 중요한 것만 간추려 본다면 다음과 같다. 가령 미국의 사이어는 처음에 세계관에 대한 그의 고전적 명저 *The Universe Next Door: A Basic World View Catalog*에서 “옳을 수도 있고 일부만 맞을 수도 있으며 전적으로 틀릴 수도 있는 삶에 대한 전제들, 즉 우리 모두가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일관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세계의 기본 구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제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했다.⁷

그러나 최근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깊이 있게 정의한다. “세계관은 우리의 존재 중심인 마음의 헌신이며 근본적인 방향 설정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기본 구조에 대해 가진 하나의 이야기 또는 전제의 집합들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존재의 근거가 되는 기초이다.”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계관이 단순히 지적 산물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헌신도 포함한다’는 사실이다.

⁷ Sire, *The Universe Next Door*, 17. “A world view is a set of presuppositions (assumptions which may be true, partially true or entirely false) which we hold (consciously or subconsciously, consistently or inconsistently) about the basic make-up of our world.) 김현수 역,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서울: IVP, 2009), 20.

⁸ James W. Sire, *Naming the Elephant: Worldview as a concept*,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4), 122.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worldview is a commitment, a fundamental orientation of the heart, that can be expressed as a story or in a set of presuppositions (assumptions which may be true, partially true or entirely false) which we hold (consciously or subconsciously, consistently or inconsistently) about the basic constitution of reality, and that provides the foundation on which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홍병룡 역, 『코끼리 이름 짓기』 (서울: IVP, 2007).

캐나다의 리디머(Redeemer)대학 교수로 있던 앨버트 월터스(Albert Wolters, 1942~)는 세계관을 “기본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사물에 대한 신념 체계”라고 정의했다.⁹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포체프 스트롬(Potchefstroom)대학 교수로 있다가 은퇴한 반 데어 왈트(B. J. van der Walt, 1939~)는 세계관이란 “인간의 활동에 있어 밑바탕이 되면서 동시에 활동을 형성하고, 동기와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통합된 사물에 대한 해석적 및 고백적 관점의 집합”이라고 설명한다.¹⁰ 캐나다 토론토의 기독교학문연구소(ICS: 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에서 가르치던 브라이언 왈쉬(Brian J. Walsh)와 리처드 미들頓(J. Richard Middleton)은 “세계관이 세상의 모델을 제공하는 동시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¹¹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세계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세계관이란 “세계와 삶에 대한 전제들로서 체계적인 성격을 가지며 모든 인간 활동의 헌신과 방향을 결정하는 관점”이다.¹² 이것은 결국 세계관과 삶이 불가분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뜻하며,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을 ‘세계관은 삶이다’로 정한 이유이다.

바른 세계관은 풍성한 삶을 낳는다.

세계관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중요하게 언급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이어와 반 데어 왈트의 견해를 살펴보겠다. 먼저 사이어는 다음 네 가지 질문으로 요약한다.

⁹ Albert M. Wolters,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2005), 2. “the comprehensive framework of one’s basic beliefs about things”. 양성만, 흥병룡 역, 『창조, 타락, 구속』(서울: IVP, 2007).

¹⁰ B.J. van der Walt, *Liberating Message: A Christian view for Africa*, (Potchefstroom: IRS, 1994), 39.

¹¹ Brian J. Walsh, & J. Richard Middleton, *The Transforming Vision: Shaping a Christian World View*.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84), 15-30. 황영철 역, 『그리스도인의 비전』(서울: IVP, 1987).

¹² 세계관의 개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는 David K. Naugle, *Worldview: the history of a concept*, (Grand Rapids: Eerdmans, 2002). 박세혁 역,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서울: CUP, 2018) 참조.

첫째,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본질과 사명 또는 목적은 무엇인가?

둘째,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주의 본성은 무엇인가?

셋째,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물은 무엇인가?

넷째,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방해물을 어떻게 제거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¹³

이 질문을 보다 깊이 분석해 보면 결국 인간, 세계, 악 그리고 구원의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 인간을 바로 이해하고 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면서 가장 근본적인 악과 죄의 문제를 안 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까지도 인식하게 된다면 가장 바른 세계관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사이어는 보다 구체적이고도 근본적인 질문 형태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진정한 실재는 무엇인가?

둘째, 우리 주변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셋째, 인간은 무엇인가?

넷째, 죽은 이후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다섯째,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여섯째, 우리가 옳고 그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일곱째, 인간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¹⁴

반 데어 발트는 세계관을 보다 포괄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세계관은 포괄적이다.

둘째,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셋째,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준다.

넷째, 하나의 통합적 관점을 제공한다.

¹³ Sire, *The Universe Next Door*, 35.

¹⁴ 같은 책, 18.

다섯째, 묘사적인 동시에 규범적이다.

여섯째, 전적 헌신을 요구한다.

일곱째, 전형적으로 인간에게만 있다.

여덟째, 전학문적(pre-scientific)이다.

아홉째, 행동의 근저에 깔린 기원이다.

마지막으로 현실 세계에 대한 명확한 상(image)이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¹⁵

세계관의 종류

세계관에도 크게 자연 중심적 세계관, 인간 중심적 세계관 그리고 신 중심적 세계관과 같이 세 종류의 유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자연 중심적 세계관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자연 자체를 신성시하는데 샤머니즘이나 자연주의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다. 세상보다는 나 자신의 주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실존주의나 각 인간의 생각을 존중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신 중심적 세계관이 있는데 유대교,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가 이에 해당한다. 이 중에도 유대교와 이슬람은 신의 초월적인 면을 좀 더 강조한다면 기독교 세계관은 신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강조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알라신과 야훼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지만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기독교적 신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다.

세계관의 기능들

이러한 세계관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그 중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언급한다면 먼저 세계관은 세상과 나 자신을 이해하는 해석적 열쇠를 제공한다. 이 세상에 많은 열쇠들이 있지만 자기 집 문을

¹⁵ Van der Walt, *Liberating Message*, 40-42.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단 하나이듯이 세상과 인간을 가장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열쇠도 하나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는 다양한 세계관이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의미에서 올바른 세계관만이 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세계관은 둘째로 현실의 상황과 삶의 경험 가운데서 인간 존재에 의미를 부여한다. 즉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그 목적을 바로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동기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에게 무조건 공부하라고 육박지르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필자 또한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온전히 깨달은 이후부터 공부에 집중했다. 이와 같이 바른 세계관은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또는 왜 내가 하는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다.

나아가 바른 세계관은 셋째로 우리 삶의 규범적인 틀로, 우리 삶을 그 원칙에 의해 선택하도록 인도하며 특정한 패턴을 따라 행동하게 한다. 가령 십계명의 원리를 알고 성실과 정직을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타협하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의 패턴을 보여 줄 것이다.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는 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지혜롭게 보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전자가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확신하며 일관성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한 넷째로 세계관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아군과 적군, 올바른 세계관과 잘못된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단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신봉하던 세계관에 위기가 오면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존재의 근거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히틀러의 나치즘이 몰락할 때 그의 부하들이 함께 불안해하면서 결국 자결하는 모습이 대표적인 예이다. 자신의 세계관이 다른 세계관보다 더 일관성이 있고 다른 세계관들의 약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세계관에 대한 확신이 강화될 것이다.

다섯째, 올바른 세계관은 우리의 소명(calling)을 자각하도록 일깨우며 이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을 느끼게 한다. 즉 참된 세계관은 단지 세상을 이해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며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준다. 다시 말해 세계관은 세상의 구조를 서술적(descriptive)으로 분석하고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규범적(prescriptive)인 측면을 포함한다.

따라서 올바른 세계관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identity)과 온전한 모습(integrity)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며 안정감, 만족감, 내적 평안, 그리고 기쁨을 제공하기도 한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과 같은 극한 상황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과 평화를 잃지 않았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신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내가 가진 세계관이 이러한 안정감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깊이 검토하여 올바른 세계관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떤 공동체는 이 세계관을 구체적인 상징물로 표현하여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영감을 주고 결속시키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가령, 공산주의 세계관은 망치와 낫이 그려진 붉은 깃발이 그 상징이며 기독교 세계관은십자가가 대표적인 이미지가 될 것이다.

성경적 세계관의 틀,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러한 세계관 중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한다. 성경적 세계관은 마치 하나의 나침반이나 지도 또는 내비게이션(navigation)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항해를 궁극적인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준다. 다른 말로 정리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고 성경의 기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성경적 세계관을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삶이야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크게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이라는 주제로 설명할 수 있다.¹⁶ 이것을 하나씩 간단히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창조는 먼저 만물의 기원에 관한 질문의 답으로 이 세상은 창조주에 의해 설계되고 지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만물의 기원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연도태와 적자생존의 법칙에 의해 생물들이 진화되어왔다고 보는 진화론과는 분명히 대조되는 세계관이다. 나아가 성경적 창조관은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조화로운 곳이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우주는 하나님의 장엄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세계는 뒤틀리고 타락하게 된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인간의 타락은 결국 세상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뒤틀린 세상이 다시 회복되고 구속되어 빛의 나라가 어둠의 나라를 정복해 나간다. 이것은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타락이 우주적 영향을 미친 것과 같이 구속도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과 우주를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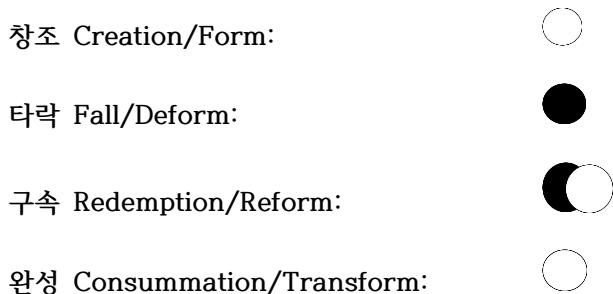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왜곡된 창조의 세계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한다면(그림 8) 먼저 창조는 깨끗하고 밝은 하나의 원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form)은 매우 좋았다. 처음 세상은 원래 매우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¹⁶ 이 네 가지 요소를 처음 언급한 학자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의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의 기독교 철학자 헤르만 도여베르트(Herman Dooyeweerd)이다. 하지만 그는 구속과 완성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다루었다. 최용준, “헤르만 도여베르트: 변혁적 철학으로서의 기독교 철학의 성격을 확립한 철학자” 손봉호 외, 『하나님을 사랑한 철학자 9인』 (서울: IVP, 2005), 55-56 참조.

었다. 반면에 타락(deform)은 검게 된 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 깨끗하던 원이 변질된 것이다. 그 결과 세상의 모든 것은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병들어 있다. 그리고 구속(reform)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깨끗한 원이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어두운 원을 몰아내는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다. 죄로 오염된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나아가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을 도형으로 표현한다면 다시 깨끗하고 조화로운 원으로 표시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원은 처음 창조의 원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원은 다시 검은 원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transform)이기 때문이다.

그림 8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요약한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다.”(롬 11:36a)

여기서 우리는 만물의 기원과 과정,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와 모든 것이 이 한 문장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장 잘 요약한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주제들을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다.

서양의 인사말에도 이러한 세계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령 스페인어로 장례식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adiós’라고 하고 불어로도 ‘adieu’라고 한다. 이 말은 영어로 하면 ‘To God’ 즉 ‘하나님께로 (간다)’는 의미이다. 즉, 돌아가신 분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뜻이다. 또한 한 해를 보내

면서 우리는 ‘아듀 2019년’이라는 말을 한글로도 사용하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이것은 2019년은 하나님께 갔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우리의 삶과 시간의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께 있다는 세계관이 인사말에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1. 당신은 어떤 종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라. 세계관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보는가?
2. 세계관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당신의 세계관은 당신의 삶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4. 성경적 세계관의 네 요소에 대해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5.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세계관들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의 우월성을 변증할 수 있는가?

02 창조_ 성경적 세계관과 삶의 출발점

필자가 독일의 어느 한인 교회에 초빙 받아 설교할 때였다. 예배 후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에 한 분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창조보다는 진화론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사실 이것은 이 분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다. 만물의 기원에 관한 주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세계관과 모든 생물은 적자생존과 자연도태의 법칙에 의해 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두 세계관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두 세계관 중 어떤 세계관으로 사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삶에 관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대적 기준이 있지만,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고 할 경우에는 인간이 스스로 세우는 상대적인 도덕만 남을 것이다. 이것은 전혀 다른 삶을 낳을 수밖에 없다(그림 9).

그림 9

그렇다면 먼저 성경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열 가지 중요한 점들을 설명해 보겠다. 이와 동시에 진화론적 세계관과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세상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작품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한다. 이 세상 만물의 궁극적인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듯이 이 우주 만물도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 있다.¹⁷

“어떤 집이든지, 사람의 손으로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히 3:4)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절대 주권을 보게 된다. 전능하신 능력이 없이 이렇게 신비롭고 광대하며 오묘한 세계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의 양식> 2006년 5월 30일 자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자.

“1977년, 미국은 우주로 한 로켓을 발사했다. 거기에는 위성들을 조사하기 위해 우주에 투하된 탐사용 로켓인 보이저 1호라고 불리는 작은 항공기가 실려 있었다. 보이저는 목성과 그 주변 위성들에서 사진과 자료를 다 보낸 후에도 일을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작동했다. 거의 3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작은 기구는 아직도 시속 38,000 마일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거의 90억 마일 떨어져 있다. 그것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뛰어난 과학자들이 태양계 저 끝으로 우주선을 보냈다.

그것은 몹시 놀랄 만하고 획기적인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과 비교해 보면 그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지은 건축가에게 그 건물의 2층까지만 가본 사람이 사랑하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광대함에 대해 겨우 일부를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류의 모든 작은 걸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력에 대한 절대적인 경이로움 속으로 빠져들게 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 보라.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한 별의 영역을 떠날 때, 그 별들의 창조자가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신다.”(사 40:26)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으셨다. 우주를 탐험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 탐

¹⁷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에는 ‘Intelligent Design’(지적 설계)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William A. Dembski, *Intelligent Design: The Bridge Between Science & Theolog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9), 서울대 창조과학연구회 역, 『지적 설계』(서울: IVP, 2002) 참조.

험하는 것, 그것은 경이로움 그 이상이다!”¹⁸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유의해서 보면 이 우주가 단지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오묘하며 질서정연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창조주의 디자인이고 작품이라고 선언한다. 하지만 동시에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는 넘을 수 없는 본질적인 경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한다. 그 경계는 바로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모든 창조의 법 또는 질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창조주는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므로 그 모든 법을 초월하신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에 따라 지음 받은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아야말로 가장 진정한 의미에서 만유의 주인이 되신다고 강조한다. 만유를 창조하셨고(창 1, 시 33:6, 잠 16:4, 히 11:3, 계 4:11), 지금도 그의 능력과 섭리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시 103:19, 104:24, 145:16, 사 28:2, 63:14, 마 10:29~31, 롬 11:36, 히 1:3).

나아가 우리 인간도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한다. 사람의 얼굴이나 몸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과 인격성이 닮았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사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부터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되심(Lordship)과 왕되심(Kingship)을 인정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한다(잠 3:6). 우리가 하는 사업, 우리의 가정, 교회, 학업 그리고 개인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모든 우상들은 결국 피조물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절대화한 허상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제일 첫째 계명에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반면에 진화론은 궁극적으로 만물의 기원에 대해 우연(chance, contingency)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고, 최초의 물질이 어떻게 존재했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다시 말해 불가지론

¹⁸ bethelpress.org/dailybread.php

(agnosticism)이다. 진화론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창조주의 전능하신 말씀과 신실하신 언약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창조주께서 천지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씀’이란 하나님의 명령인 창조적인 진술로 그 자체가 능력이 있고 주권적임을 창세기 1장은 보여 준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빛이 생겨났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는 소위 ‘*creatio ex nihilo*’,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세계의 어느 다른 종교나 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하고도 독특한 세계관이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 조물주(*Demiurge*)도 사실은 이미 존재하는 원물질(原物質)로 세상을 만들었으므로 엄격히 말하면 무에서의 창조는 아니다.¹⁹

또한 진화론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진화의 과정을 자연도태와 적자생존의 법칙으로 설명한다. 환경에 맞지 않는 생물은 자연히 사라지고 적응하는 것들만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격적인 조물주의 개입이 전혀 있을 수 없다. 비인격적이고 우연에 의해 시작된 생명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적응하고 살아남은 결과가 현재의 세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은 잠정적이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안정감 대신 불안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 반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¹⁹ Platon이 *Timaeus*에서 처음 언급하고 있음.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그 깊은 바닷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 두셨다.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모든 것이 생기고, 그가 명하셔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시 33:6~9)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다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 때의 세계가 홍수에 잠겨서 망해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이다.”(벧후 3:5~6)

또한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으로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읽어볼 수 있다(시 147:18, 148:8).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을 신뢰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Wort*)에 대한 응답(*Antwort*)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고 바다가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그 응답으로 바다가 생겨났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헛되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더욱 그 분을 의지할 수 있다.

만드신 만물에도 지혜와 법칙이 있다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한다.

“주님, 주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시 104:24)

잠시 셀 수도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걸작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코가 긴 코끼리,

귀가 긴 토끼, 입이 길쭉한 악어, 뚱보 하마, 남극에 사는 펭귄, 애완용으로 즐겨 키우는 고양이, 강아지,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들, 바다의 다양한 물고기들, 돌고래,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산, 각종 나무들, 그랜드 캐년, 이과수 폭포, 아마존 강과 밀림 지역, 미시간 호수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주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 나아가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랍다”(시 139:14)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어떤 동물들은 매우 유머스럽게 생겼다(그림 10).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머의 주인이기도 하심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 사람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신비롭고 오묘함을 느낀다. 이 아름답고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이해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림 10

그러나 진화론자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있을 수 없다. 진화론자의 가슴에는 우주에 대한 벅찬 감동이 없다. 우연은 찬양의 대상이 아니며 현재의 세계는 치열한 적자생존 경쟁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만물이 지혜로운 설계자의 결작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된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감동을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우연의 산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것 또한 하나의 믿음일 뿐이다.

나아가 성경은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낸다고 말한다. 이것을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와 구분하여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말한다. 창조 세계는 너무나 정교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드러낸다는 말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 준다.”(시 19:1)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다.”(행 14:17)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평계를 댈 수가 없다.”(롬 1:20)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은 아무렇게나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분의 지혜와 법칙을 따라 지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한다.

“주님은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그분은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 를 터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잠 3:19~20)

따라서 잠언서의 결론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잘 배우고 그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한 삶이라는 것이다(잠 1:7).

전도서는 청년의 때에 이 지혜의 창조주를 바로 알고 그 분을 온전히 섬긴다면 결코 헛되지 않은 삶 을 살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전 12:1)

삼위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신다.

다음에 생각할 것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신 하나님은 창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창조를 성부 하나님께서만 하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잠언은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께서 중보자로 함께 계시면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음을 보여 준다(잠 8:22~31). 특히 30절을 보면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고 말씀한다. 즉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의 명공(the craftsman)’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함으로써 성부 하나님을 만족케 해드리면서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눈 것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 분명히 말씀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요 1:1~3)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시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골 1:16~18)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하나님의 본바탕의 본보기이시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다.”(히 1:2~3)

이와 같이 성자 하나님 또한 창조 사역에 전적으로 참여하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성령께서도 창조 사역에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하신 것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창 1:2)

이것은 마치 독수리가 고공을 비행하다가 먹이를 발견한 후 그 먹이를 발톱으로 움켜쥐어 꼼짝하지 못하게 만든 모습과 같다. 바다의 수면과 같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chaos)으로부터 질서정연한 창조의 세계(cosmos)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디스켓을 사용하려면 제일 먼저 포맷을 해야 했듯이 성령께서 그러한 질서를 만드시고, 성부께서 구체적인 창조 사역을 집행하신 것이다.

나아가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창 2:7)고 말씀하고 있다.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된 근본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영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의 말씀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깊이 동참하셨음을 보여 준다.

“그분의 콧김에 하늘이 맑게 개며…”(욥 26:13)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욥 33:4)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면 그들이 다시 창조된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시 104:30)

나아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면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한다. 또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엘로힘(אֱלֹהִים)’도 문법적으로 따지면 단수 ‘엘’의 남성 복수형이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창조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자의 영역에서 함께 일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림 11). 즉 성부 하나님은 신적인 건축가(divine architect)로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분이며, 성자 하나님은 신적인 시공자(divine

constructor)로서 직접 지으신 분이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신적인 예술가(divine artist)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건물을 지을 때에도 설계하는 사람과 시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설계자가 도면을 주면 시공사는 그 도면을 따라 건물을 짓는다. 그 후에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업자가 와서 그 건물의 목적에 맞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패턴은 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인간이 닮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11

인간, 영광스런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성경은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선포한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차이가 아닐 수 없다. 원숭이에서 진화된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어느 것이 더 존귀할까? 어느 입장이 인권의 궁극적인 기원과 인간의 존엄성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한 번 생각해 보라. 또 우리를 지으신 분이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라. 이것은 진정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관이요 삶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듯,²⁰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 처음 받았으나 한 몸이 된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다양성(삼위) 안에서의 일치성(일체)을 계시하듯, 사람도 남자와 여자라는 복수성과 동시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됨을 이룬다. 이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의 한 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산수에서도 1 더하기 1은 2이지만 1 곱하기 1은 1이다.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답이 다르지만 둘 다 옳다. 분명히 다른 두 인격체이지만 곱하기로 생각하면 한 몸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12명이 한 공동체(community)를 이루었을 때 더하면 12명이지만 곱

²⁰ 삼위일체에 대해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필자가 볼 때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구속사적 설명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하면 하나인 것이다. 공동체의 영어 단어가 com + unity인 것도 함께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다. 성찬(communion)도 마찬가지이다. 함께(com) 한 주님의 몸(union)된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거룩한 예식이다.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어느 정도는 닮았음을 뜻한다. 하나님의 속성 중 전지전능하심이나 영원하심 등과 같이 인간이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거룩하심이나 의로우심, 자비하심 등과 같이 인간이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속성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엡 4:24)고 권면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창세기 1장 26~28절의 문맥을 자세히 보면 잘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요 책임의식을 가진 청지기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면서 땅을 정복하기 위함인 것이다. 이것을 소위 ‘문화 명령(cultural mandate)’이라고 한다.²¹

피조계에 담겨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과 잠재성을 개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어야 할 사명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여기에 또한 역사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인간의 역사란 이 하나님의 말씀(Wort)에 대해 인간이 어떻게 활동하고 응답(Antwort)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 순종할 경우 그 문화는 발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문화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결국 자체적인 모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한 인간의 모든 활동을 문화라고 넓게 정의한다면 인간의 총체적인 문화 활동이 다름 아닌 역사이며,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대한 응답의 결과라고 말할 수

²¹ 이러한 개념을 처음 언급한 사람은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이다. Abraham Kuyper, *De gemeene gratie*. (3 delen) (Leiden: D. Donner, 1902-1904).

있다.

그렇기에 인간의 본질은 그저 우연히 단세포 생물에서 수많은 진화를 거쳐 지금까지 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온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역사와 문화의 주체로서 이해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교에서 도여베르트 석좌 교수로 봉직하다 은퇴한 헹크 헤르쯔마(Henk G. Geertsema, 1940~) 교수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응답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응답하는 인간’*Homo Respondens*라고 말했다.²²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Homo Sapiens*, 노동하는 존재*Homo Faber*, 또는 유희하는 존재*Homo Ludens* 등 여러 가지로 정의해 왔지만, 인간의 존재와 그 모든 활동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문화 명령에 응답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인간의 세계관과 모든 활동 또한 하나님의 규범적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 우리는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다. We cannot not respond 그 응답에 대해 책임져야 *Verantworten* 한다. 인간은 책임 *Verantwortlichkeit*적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다.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Responsibility’이다. 이 단어는 ‘응답’을 뜻하는 ‘Response’와 ‘능력’을 뜻하는 ‘ability’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이다. 즉 ‘책임’이란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해 순종 또는 불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고 그 응답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다.

²² Henk G. Geertsema, “Homo respondens. On the historical nature of human reason”, *Philosophia Reformata* 58, (1993), 120–152. 보다 자세한 연구는 Govert Buijs, Peter Blokhuis, Sander Griffioen, Roel Kuiper (red.) *Homo Respondens: Verkenningen rond het mens-zijn*. Christelijk Wijsgerige Reeks 22, (Amsterdam: Buijten & Schipperheijn Motief, 2005) 및 최용준, 『응답하는 인간』(서울: SFC, 2008) 참조.

하지만 진화론적 세계관에서는 인간의 책임성을 묻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자신을 변화시켜야만 하므로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러한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창조는 완성을 지향한다.

만일 우리가 인간의 다양한 응답적 문화 활동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정적(靜的, static)인 것이 아니라 매우 동적(動的, dynamic)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가령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살고 있었음을 보지만 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에서 예비된 신부처럼 아름답고 화려하게 단장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된다. 동산(Garden)에서 도성(City)으로 변화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허락하신 동산을 잘 ‘개발’하는 동시에 ‘보존’하라고 말씀하신다(창 2:15). 이 말씀은 환경에 대한 책임 의식 또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창조된 세계를 인간이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함을 뜻한다. 다시 말해, 창조는 완성을 지향한다(Creation points to consummation)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창조란 하나의 ‘오픈 시스템’(Open System)이라고 사이어는 지적한다.²³ 결정적으로 프로그램화된 과정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 의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이 잠재되어 있다는 말이다. 이는 마치 다양한 지하자원들이 인간에 의해 개발되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과 같다. 이러한 과정을 다른 말로 ‘개현 과정’(Unfolding process: Opening process)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노트북 컴퓨터나 폴더형 핸드폰이 펼쳐지면서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고, 꽃봉오리가 피

²³ Sire, *The Universe Next Door*, 29.

면 그 아름다움을 더욱 나타내듯이 창조 세계는 무한한 가능성 향해 열려 간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창세기 2장 10~12절을 읽어 보면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지는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으로, 금이 나는 하월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고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으며 브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고 한다. 왜 이 구절에 금, 향료, 보석 등이 언급되었을까? 그것은 분명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것들을 개발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과정이 인류의 역사요, 문화사이며 영적으로 보면 구속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도여베르트와 함께 저명한 네덜란드의 기독교 철학자 코넬리우스 반 퍼슨(Cornelius Van Peursen, 1920~1996) 교수는 문화를 ‘복수형 동사’라고 설명한다. 동사란 그 동적인 면을 말하고 복수형이란 그 다양함을 뜻한다.²⁴

하지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은 ‘힘’과 ‘경쟁’이 사회의 진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상으로 역사의 과정을 단지 생존경쟁의 논리로만 이해한다. 따라서 사회에 불필요한 장애인과 같은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제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역사의 발전 과정은 단지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인간의 적응 여하에 좌우되는 것이며, 따라서 개인주의적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고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가속화된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문화와 역사의 발전 방향은 결국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대해 인간이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규범을 따르는 인간의 모든 활동은 결국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인간은 자신을 위해 혹은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를 낳게 되어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존재 그 자체가 좋다

²⁴ Cornelius Van Peursen, *Cultuur in stroomversnelling*, (Elsevier: Amsterdam, 1975).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사실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더 나아가 모든 피조 세계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창 1:31)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딤전 4:4~5)고 말하면서 금욕주의자들의 오류를 비판한다. 물론 여기서 ‘좋다’고 말하는 것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좋음을 뜻한다.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은 모든 종류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배격한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하여 지나친 금욕주의를 강조하거나, 반대로 모든 육체의 정욕을 정당화하여 쾌락주의에 치우치는 것 모두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정신은 고귀하고 물질은 천하다고 생각하고, 남자는 존귀하지만 여자는 비천하다고 간주했던 남존여비 사상, 성직은 영적인 직업이지만 다른 직업은 세속적인 직업이라고 천시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피조 세계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변형된 세계임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보겠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좋은 정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최상(best)의 세계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그러나 진화론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단지 생존경쟁과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 어떠한 가치 평가를 내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계가 과연 지금 보다 더 나을지에 대해서도 전혀 답을 줄 수 없다. 단지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는 생물들만이 생존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유물론자들이 쉽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이유도 바로 이 점에 있다. 정신적인 요소까지도 물질적인 것으로 설명하려 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간의 고귀한 가치나 윤리적인 삶

에 대해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초월적인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삶

창조에 관해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과 동시에 그분의 내재성인 우리와 함께하심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지극한 사랑의 관심으로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계속 다스리신다. 특별히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며 구원자이시고 또한 위로자가 되신다.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 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우어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사 57:15)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하셔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망각할 때 우리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 하나님의 초월성만 인정하게 되면 이신론(理神論, deism)이 된다. 이신론이란 초월적인 조물주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그 후 스스로 운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본다. 따라서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후 태엽이 감긴 시계와 같이 세상은 더 이상 조물주의 간섭 없이도 저절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창조주의 내재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슬람의 신관도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계관은 세상을 하나의 ‘닫힌 시스템’으로 보게 되며, 따라서 ‘기적’은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은 거기에 내재하시지도 않고, 완전한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도 않으며, 인간사의 주재자도 아니다. 따라서 자연에 대해 결정론적 사고

를 가지고, 인간은 비록 인격체이지만 우주라는 기계의 한 부품과 같이 단지 우주의 한 구성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주의적 세계관(自然主義的 世界觀, naturalism)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물질만이 원래부터 존재해 왔으며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그 존재하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초월적 신이라는 것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자연은 이미 존재하는 법칙에 의해 움직이며 인간도 하나의 고도의 복잡한 물질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을 둘러싼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신비는 어느 것을 막론하고 순수한 신비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기계의 복잡성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창조주의 초월성과 내재성 모두를 배척한다.

이보다 더 극단적인 세계관은 무신론적 실존주의(無神論的 實存主義, atheistic existentialism)이다. 이 세계관은 우주가 단지 물질만으로 구성되었지만 인간에게는 실재가 주관과 객관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단지 인간에게만 그 존재가 본질을 선행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으며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본성과 운명에 대해 완전히 자유롭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내재성만을 강조하면 범신론(汎神論, pantheism)과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된다. 이것은 만물에 신적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신적 존재의 초월성은 부인하는 것이다. 샤머니즘이나 정령숭배 또는 애니미즘에도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다. 수많은 귀신들을 섬겨야 하므로 미신적 주술 행위를 통해 현세적 축복과 성공만 추구하는 왜곡된 세계관을 낳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분명히 보여 준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가령,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질서를 홀로 주장하시고(7~9절), 각종 짐승과 곡식과 식물들을 친히 기르시며(10~18절), 해와 달의 순환과 밤낮의 교체와 같은 우주의 순환을 주관하시고(19~24절), 바다와 그 밑의 동

물들을 다스리시는 분임을(25~29절) 찬양한다. 시인의 눈에 비친 하나님은 단순히 이 우주 공간을 여시고 거기에 온갖 피조물들을 만들어 두신 분으로서가 아니라, 그 만드신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후 거기에서 손을 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사실상 피조된 만물들이 온전히 보존되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운행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권능이 그 배후에서 섭리하시기 때문이다. 만물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에 온전히 순복할 때에 비로소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모습을 지닐 수 있다.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이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엡 4:6)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통일하시며 다스리시고 모든 피조물 안에 내재하시는 분이시다. 뛰어난 조각가가 자신의 아이디어로 창조적인 조각품을 만들었을 때 조각가는 그 작품을 초월한다. 따라서 다른 작품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뛰어난 조각가는 동시에 자신이 창작한 작품 속에 자신의 혼을 담으려고 노력한다. 다시 말해, 그 작품 속에 조각가가 내재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창조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균형 있게 이해하게 해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존재하며, 따라서 그 신실한 말씀에 의해 자연의 법칙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너희가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도 그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렘 33:20~21)

“나 주가 말한다. 나의 주야의 약정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렘 33:25~26)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에 대해 약정하시고 충실히 이행하심으로 주야가 일정하게 반복되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과 세운 언약인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새 언약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 밤에 자면 다시 태양이 동쪽에서 솟아오를 것을 아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를 믿는 신앙인은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과연 이러한 자연법칙의 궁극적인 확실성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극단적 회의주의자였던 데이비드 험(David Hume, 1711~1776)은 “지금까지 매일 아침 동쪽에서 태양이 떠올랐다고 해서 내일 반드시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으느냐”고 말했던 것이다. 우리가 만일 이러한 회의론에 빠지게 되면 사실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매일 걱정과 불안 속에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회복하며 더욱 감사하게 된다.

전 우주에 미치는 직접적인 창조의 법칙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법칙을 따라 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 우주 만물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거기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여러 학문이 발전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우주 내의 법칙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네덜란드의 기독교 철학자였던 도여베르트는 이러한 질서와 법칙이야말로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 짓는 경계가 된다고 말했다. 창조주는 법의 제정자이시므로 그 법을 초월하지만 피조물은 그 법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창조를 이야기할 때 창조주-법-피조물(Creator-law-creature)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창조라고 할 때 생각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도식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간 통찰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창조의 법에 두 종류가 있음을 알게 된다.

첫째는 자연법(natural law)이다. 이것은 중력의 법칙, 운동의 법칙, 열역학의 법칙, 광합성의 법칙, 그리고 유전의 법칙 등과 같이 전 우주에 미치는 직접적인 창조의 법칙을 뜻한다. 그러므로 자연과학자들의 연구(research)는 사실상 세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칙을 다시(re) 발견하는(search)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든 학문 활동은 각 분야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들을 발견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여베르트는 피조계에 존재하는 법칙 구조에는 구체적인 사물과 같은 개체 구조와 이러한 사물을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양상 구조가 있다고 보며, 이 양상 구조를 15가지로 구분 한다. 그는 학문적 지식 또는 이론적 사고가 가능한 것은 피조계의 각 양상이 논리적 양상과 종합될 때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가령 생물학(biology)이란, 이 세계의 생물적(bio-) 양상들만을 논리적(-logy)으로 연구하고 조직적으로 이론화시킨 학문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학문이 가능한 근거는

이 창조 세계에 법칙이 있기 때문이며, 이 법칙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을 제정한 제정자(Law-Giver)가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면 창조 사역도 매우 질서 있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6일 동안의 창조 기사가 첫 3일에는 배경적인 창조 기사로 되어 있고 나머지 3일은 그 각각에 대해 보충해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후 넷째 날은 보다 구체적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심으로 주야와 춘하, 추동, 사시, 연한을 나누게 하신다.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 궁창인 하늘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물속의 생물들과 하늘에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한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신 후 이어서 땅에 풀과 채소 그리고 과목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후 다섯째 날에는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모든 육축과 땅에 기는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화론을 배격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모든 생물들 중, 종과 종 간에는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종 안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이가 일어날 수 있지만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바뀌는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뒤집어 말한다면 만일 진화론이 맞을 경우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경우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는가?

어류에서 양서류로,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파충류에서 다시 조류로, 그리고 조류에서 포유류로 진화 되는 경우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인류 역사상 그러한 경우는 없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소위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는다’(missing link)고 말한다.

나아가 진화론은 사실 현 자연계를 지배하는 소위 ‘열역학 제2법칙’에도 맞지 않다. 이 열역학 제2법칙이란 다른 말로 ‘무질서도(엔트로피 entropy)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모든 만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질서도가 감소하고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새 자동차도 타지 않고 가만히 두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녹이 슬고 점점 그 성능이 떨어진다. 반면에 진화론은 우연히,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리저리 조합되어 새 자동차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진화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며 질서도가 증가하는 과정인데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 그러한 법칙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화론은 사실상 허구일 수밖에 없다.

창조에 있어 두 번째 법은 규범(norm)이다. 이것은 십계명과 같이 인간의 사회와 문화에 적용되는 당위의 법칙으로, 준수할 수도 있지만 어길 가능성도 있는 도덕법 또는 문화법이다. 여기에 인간의 책임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규범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창조의 법인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지혜란 바로 이러한 규범적 법칙을 바로 분별하여 이 법을 따라 사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진화론은 우리에게 아무런 삶의 의미를 주지 못한다. 원숭이로부터 우연히 진화되었고 또한 앞으로 다른 생물로 바뀔지 모르며, 모든 법칙은 그저 우연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속에는 어떠한 윤리도 없고 그저 적자생존, 약육강식이라는 잔인한 정글의 법칙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될 수밖에 없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필요도 없는 무자비한 사회를 낳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네덜란드에는 50년된 ‘조스티(Josti) 밴드(www.jostiband.nl)’라고 하는 특별한 오케스트라가 있다. 이들은 2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장애인들이다. 각자 다양한 장애가 있지만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자신의 장애에 대해 비관적이거나 허무주의에 빠지는 대신 그들에게 남아 있는 가능성에 집중하여 자신에게 맞는 악기를 찾아 함께 연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그림 12). 이 오케스트라의 슬로건은 ‘각 사람은 특별하다(Iedereen is bijzonder, everyone is special)’이다. 이들이 연습하는 동영상을 보면 악보도 읽을 수 없지만 각 음에 색깔을 붙여 연주한다.²⁵ 단월

²⁵ youtu.be/MYTTHNkHH8M

들을 보면 심지어 자신의 장애에 맞은 악기들을 개발하여 함께 연주하면서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매년 연말에는 네덜란드의 왕가 및 정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 음악회를 하는데 전국에 생중계되며 연주가 끝난 후 왕이 직접 꽃을 들고 와서 축하해 주는 장면은 보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그림 12

이와 비슷한 사례로 독일의 빌레펠트(Bielefeld)라는 도시에 있는 ‘벤텔(www.bethel.de)’을 들 수 있다. 이 단체는 약 150년 전인 1867년에 간질병 환자들을 돌보는 복지 시설로 한 내륙 선교단체 (Inneren Mission)에 의해 설립되었다. 당시에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사회의 주변으로 밀려나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프리드리히 시몬(Friedrich Simon)이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그 후 프리드리히 폰 보델슈빙(Friedrich von Bodelschwingh, 1831~1910)은 이 벤텔을 유럽에서 가장 큰 사회복지 시설 중 하나로 발전시켰다(그림 13). 그 후 지금까지 수많은 장애인들이 이 곳을 통해 허무주의나 염세적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자세로 재활에 집중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름대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제 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는 이 장애인들을 쓸데없는 존재들로 간주하면서 가스실에 넣어 죽이려고 했으나 이곳에 있던 많은 분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장애인들을 숨겨주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바로 비록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귀한 존재라고 이해하는 세계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림 13

나아가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고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그 질서를 유지하신다. 또한 사람에게 자연 법칙들을 잘 연구하여 자연 세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서 잘 보존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모든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섬기라는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따라서 이 사랑의 법을 따

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또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욱 개발하고 문화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창조, 성경적 세계관과 삶의 출발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창조는 성경적 세계관과 삶의 출발점이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경이감을 갖게 하며 조물주에 대해 찬양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한다. 이 우주는 우연히 생겼거나 진화된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설계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아가 이 우주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다스려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분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과 모든 사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높이 찬양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며 다른 아무 사람이나 피조물도 그분을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동시에 창조의 법칙이나 원리를 절대화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 법칙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정하신 분이 계심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그 법칙을 새롭게 발견할 때마다 그분을 더욱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1. 당신의 삶을 포함한 만물의 기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2. 당신이 진화론을 따를 경우 ‘우연’이 궁극적인 기원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가? 그렇다면 이 세계관이 낳게 되는 필연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
3. 성경적 창조관이 진화론적 세계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4. 성경적 창조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
5. 인간을 응답적 존재(*Homo Respondens*)로 정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6. 창조는 완성을 지향한다는 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야기해 보자.
7. 성경적 창조 이외의 다른 세계관을 가질 때 그 삶은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생각해 보자.

2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Through Him are all things

03 타락_ 우상을 만드는 공장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

빌 클린턴(Bill Clinton, 1946~)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그의 추문으로 매스컴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 전 세계의 지도자로서 주목받던 그도 개인적인 삶에서는 별수 없는 인간이며 죄인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간에 이 사건을 볼 때 그의 삶에는 분명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서 왔으며 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선한 사람들에게 악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질문이기도 하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홀로코스트(holocaust), 즉 나치에 의해 희생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과 500만 명의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등,²⁶ 쓰나미로 희생당한 무고한 생명들, 9.11 테러로 생명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주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실존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악한 정욕이 꿈틀거린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던 청년 요셉이나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간 성군 다윗에게도 죄의 문제는 예외가 아니었다.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원하는 그것을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바울 사도의 탄식을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너무나 생생하게 읽을 수 있다. 육과 같이 선하게 살려는 사람에게도 사정없이 닥쳐오는 불행들을 보면 악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악의 문제는 이 세계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²⁶ 참고로 홀로코스트(holocaust)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hólos*(όλος, 전체)+*kaustós*(καυστός, 타다)에서 유래되었으며 구약 성경 레위기에 나타난 ‘번제(burnt offering)’를 라틴어(holocaustum)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타락과 구속’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인류의 타락과 그 영향, 그리고 그 결과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성경말씀을 토대로 함께 생각해 보겠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고귀한 존재였지만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따라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얼핏 이것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일지 모른다.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인간 원래의 모습과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으로서 인간은 극과 극의 대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 모두를 100% 인정하고 있다. ‘천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인 동시에 ‘벼러지 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이 두 가지 면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인간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바로 알 수 없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는가를 잘 설명해 준다. 타락(fall into sin)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문자 그대로 ‘높은 데서 떨어졌다’는 의미이다. 인간이 본래의 존귀한 위치에서 죄를 범한 죄인의 상태로 그 가치가 저하되었고, 그 원래적인 의로움을 상실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물을 올바로 다스리지도 못하는 비참한 죄인이 되었다.

창세기를 보면 타락한 천사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최초의 여성인 하와를 유혹한다. 창 3:1~6 사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고 남편 아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었다. 그러기에 사탄은 아담 대신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나님 명령의 진정성과 확실성에 의심을 제기하면서 달콤하게 유혹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 3:1b)

그러자 하와는 뱀에게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3절)라고 대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자신의 생각을 임의로 덧붙이게 된다.

그러자 사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4절)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5절)라고 유혹한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대표적인 네 가지 거짓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이 금단의 열매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모든 잘못된 세계관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일단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말씀을 제거하고 보는 것이다. 그래야 사탄의 논리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와의 눈은 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사탄의 교훈을 따라가면 영육 간에 새로운 비전과 세계관을 갖게 된다고 유혹하고 있다.

세 번째 거짓말은 이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말이다. 이것은 사탄의 본질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하와에게도 심어주려는 것이다. 지금도 뉴에이지(New Age)와 같은 세계관은 인간이 곧 신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 거짓말은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은 하와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전제한다. 사탄이 주는 지식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더욱 심화된 네 가지 거짓말을 통해 그 선악과를 다시 보자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관이 하나의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올바른 안경을 쓰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것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될 열매였지만 그

와는 반대로 교만한 마음,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라는 잘못된 색안경을 쓰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는 달랐다. 그것은 6절에 나타난 것처럼, 첫째로 먹음직도 하고, 둘째로 보암직도 하고, 셋째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열매로 보이게 된다. 이처럼 바르지 못한 세계관은 사물을 왜곡해서 잘못 인식하게 만들고 그 결과 잘못된 행동을 낳게 함을 볼 수 있다.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자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함께 죄를 짓게 된다.

하와와 아담이 이렇게 선악과를 범한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피조물 본연의 위치를 망각하여 그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마치 어항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물고기가 마침내 생명을 잃어버리듯,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인류의 시조를 타락하게 만든 이 세 가지 유혹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사랑”이라고 지적한 것과 일치한다. 또한 이와 동일한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간 금식하실 때 사탄이 이와 동일한 시험을 했다.

먼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마 4:3)고 하면서 육신의 배고픔을 통해 유혹했고, 두 번째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할 것이다’하였다”(마 4:6)라고 시험했다. 마지막으로는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면서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마 4:9)고 유혹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가 범죄, 타락함으로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함께 죄인이 되었다. 반면에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들을 모두 온전히 극복하시고 나아가 죄의 권세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의인이 된 것이다.

죄를 범한 인간, 그들은 먼저 눈이 밝아졌다고 창세기 3장 7절은 말씀한다. 사실상 이 말의 뜻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오염된 세계관은 오히려 자신들의 수치를 깨닫게 했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든다.

그러나 그 임시방편은 얼마 있지 않아 말라 버리고 만다. 그들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된다. 범죄의 결과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단절과 왜곡 또는 변형된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온전히 응답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의 모습을 동시에 본다.

그러나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한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창 3:10)

하나님께서 그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느냐고 물으시자 아담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 범죄의 책임을 하와의 잘못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더 큰 죄를 짓게 됨을 12절에 보게 된다. 하와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책임을 뱀에게 전가시켜 버린다(그림 14).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인격체로 창조함을 받았으나 이제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은 그 죄를 정당화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과 사탄에게 전가하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타락하고 철저하게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림 14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러한 범죄를 낳게 한 사탄, 즉 뱀에게 결정적인 심판을 선포하신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15절)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여 소위 ‘원시복음’*Proto Evangelium*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여자의 자손’은 궁극적으로 남자와 상관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예수님과 사탄 간에는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대립관계(antithesis)가 설정되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사탄을 향해 궁극적인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의 재림으로 심판이 완성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반면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모든 고난을 상징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동시에 죄를 범한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키시면서 여자는 임태의 고통과 남편을 섬기는 수고를 부과하게 되고 아담에게는 그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 이전에는 에덴동산의 여기저기에 풍성하게 맺혀 있는 열매들을 수고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었지만 죄의 영향으로 온 피조계가 변형되고 오염되어 저주를 받아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우주적인 영향’(cosmic effect of sin)을 보게 된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단순히 그들만의 타락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타락을 의미했으며 인류의 타락은 동시에 그들이 다스려야 할 전 피조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죄는 아담과 하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인간 사회, 가정, 국가, 정치 구조, 경제, 과학만능주의 등 모든 영역에서 마치 기생충처럼 붙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변질시키고 부패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말씀한다.

죄는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었고 결국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날알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창 3:19)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는 결국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에 죄의식을 낳게 되고 그 범죄에 따른 심판을 초래했으며, 결국 낙원에서 추방되어 심리적, 신분적, 환경적인 추락의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이 본질적으로 육체와 영혼, 그리고 그를 둘러싼 환경 전체를 파괴하는 전적인 타락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심판을 선고받자 아담은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다. 하나님께서 사탄에 대한 심판과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복음, 그리고 그와 그의 아내에게 선포하신 심판에 대해 듣고 나서 아내의 이름을 처음으로 하와라고 부른다. (창 3:20) 하와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라는 뜻인데 결국 그의 신앙고백이 담긴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와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에서 구속함을 얻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남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곧 말라 없어질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짐승의 생명을 취하여 그 피 흘린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입게 된다.

이것은 인간의 선행이나 의로는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회복됨을 보여 주는 예표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함도 없다”고 말씀한다. (히 9:22)

만일, 우리가 악의 근본 원인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찾지 않고 다른 것에서 찾는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사회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를 단지 사회의 구조 변화라든지 급격한 빈익빈부 익부와 같은 거시적인 차원에서만 설명한다면 사실상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상실되고 말 것이다.

나아가 악의 범위를 어떤 일정한 영역에 제한하는 것도 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악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삶의 분야에서 악은 나타나는 것이다. 노벨이 훌륭한 의도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으로 전쟁 무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무기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았다. 이와 같이 아무리 좋은 기술이 개발되어도 항상 그것을 남용, 악용 또는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인간이 만든 ‘테크노피아(technopia)’란 하나의 이상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모든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인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악과 우리가 경험하는 실재와의 관계는 무엇일까?

죄로 오염된 세상에 소망은 없는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악은 마치 기생충 또는 병균과 같다. 기생충이나 병균이 우리 몸에 침투하게 되면 몸의 구조 자체는 큰 변화가 없지만 그 기능은 점점 약화되어 마침내 병들게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과 같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컴퓨터의 외형은 그 모습과 구조를 유지하지만 결국 그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어 컴퓨터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죄가 창조 세계에 들어오면서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계의 모든 영역을 부패시키고 타락시켰다. 그러므로 피조계는 맑고 깨끗하던 호수가 오염되듯 죄로 더러워지고 말았다.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통찰력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 ‘죄’와 ‘악’의 실재성과 그 엄청난 파괴력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왕이었지만 그가 철저히 부패한 죄인임을 잠시 잊었기에 말년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이 죄의 영향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도 별수 없이 넘어지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죄로 오염되어 다른 소망은 없을까?

우상을 만드는 공장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한 이후 그들을 즉시 죽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하와에게 잉태의 고통을 더하셨지만 자녀를 낳음으로써 그들의 후손이 계속 번성하도록 허락하셨다. 아담 또한 땀을 흘리고 수고했지만, 그 결과 식물을 먹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긴 했어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름다운 창조 세계의 질서와 구조를 완전히 파괴시키지는 않았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반 은총 또는 보존 은총이라고 말한다. 가령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과 가정 제도도 죄가 들어오자 매춘, 가정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결혼의 신성함과 가정의 소중한 가치 자체를 완전히 파괴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창조 세계의 구조는 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존 은총으로 계속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그 방향이 원래의 궤도를 이탈하여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 구조와 방향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성경적 통찰력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 주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 주시며 사시사철과 결실기를 통해 자신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 그리고 온전하심을 계속 보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에덴동산에서 내어 보내신다. 22~24절에 보니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시 이 낙원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천사들과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신다. 이는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상실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그림 15).

그림 15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억누르고 그 대신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 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롬 1:22~23)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 칼뱅(Jean Calvin, 1509-1564)은 인간을 ‘우상들을 만드는 공장’*fabrica idolatorum*이라고 불렸다. 하나의 우상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중 제1계명과 2계명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알고 경외하는 말씀이다. 하지만 죄인의 삶은 이것과 정반대인 다른 신을 섬기는 삶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는 것을 억누르고(suppress), 대신 그 자리에 돈이나 명예, 학위나 권력 등 다른 우상들로 대체시키는(replace)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제2계명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다. 왜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을까? 언뜻 보기에도 이것은 제1계명과 중복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이중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우상을 만드는 일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이는 피조물로 바꾸어 버리고 제한하는 허망하고 미련한 일이다. 둘째로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처럼 섬기며 경배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본질적인 위

치마저 상실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제2계명을 통해 우리들이 우상의 ‘형상’을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지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참된 위치마저 부정하고 왜곡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이 아니라 ‘형상들의 형상’(Image of images)으로 전락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무서운 사건이 이어진다. 그리고 그 가인의 후예들은 점점 더 에덴의 동쪽으로 옮겨 가면서 타락한 문화를 건설하다가 결국 바벨탑을 건축하려 했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방향이다. 바벨탑은 지금말로 하면 최첨단 기술이 동원되어 건설된 도시로 타락한 인간이 낙원으로 만들어내려고 한 문화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이 프로젝트는 실패하고 중단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네덜란드의 화가 피터 브뤼겔(Pieter Bruegel, 1525~1569)은 자신의 그림을 통해 잘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바벨탑이 아니라 그 탑을 건설하는 인간에게 있다. 이 그림 왼쪽 아래에 보면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자 결국 내부적인 모순이 발생하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갈등이 커져 바벨탑은 실패작이 된 것이다(그림 16).

그림 16

하지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와 정반대의 사건을 보여 준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 머나먼 여정을 떠난다. 그것은 가인의 후예들과는 사실상 정반대의 삶의 방향이었다. ‘삶’이라고 하는 동일한 구조이지만 그 방향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반

응을 하는가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음을 보게 된다.²⁷

이 ‘구조’와 ‘방향’의 구분은 문화 변혁에도 중요한 통찰력을 준다. 가령, 우리는 대체로 찬양을 할 때 서양 음악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국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국악선교회도 있다. 국악이라고 하는 음악적 구조는 그대로 살리되 그 내용과 방향을 성경적으로 변화시킨다면 얼마든지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 교회당 건축도 마찬가지이다. 서양식 건축만이 전부가 아니라 기능을 잘 살리면서 한옥 내지는 동양적 건물로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에도 개신교회로는 장석교회(그림 17)가 천주교회로는 천진암 성당(그림 18)이 이러한 건축물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면 모두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 달려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림 17

그림 18

뒤틀린 세상, 깨어진 세계

결론적으로 성경적인 인간관은 어찌면 매우 양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만물의 영장이지만, 동시에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다. 무한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진 인간인 동시에 가장 악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얼핏 상반된 면이지만 한 인간 속에 함께 공존한다고 성경은 말한다.

나아가 인간의 타락은 매우 ‘극단적’(radical)이며 피조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치 기생충이

²⁷ Roy Clements, *Masterplan: How God makes sense of the world*,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94). 황영철 역,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서울: IVP, 1997).

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 영양분을 빨아먹으며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병에 걸리게 하는 것과 같이, 죄는 창조된 세계에 들어와 모든 영역에서 그 바이러스와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뒤틀린 세상이요, 깨어진 세계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존 은총도 보았다. 더 나아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메시아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 그들에게 그 표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그들이 다시금 구속될 것을 미리 보여 주셨다.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는 장차 ‘의롭게 될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범죄 가능성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는 죄를 범할 가능성을 지닌(*posse peccare*: be able to sin),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이 아닌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non posse non peccare*: not be able not to sin)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며 (롬 3:10),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롬 3:23),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속 사역을 이미 이루셨기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의롭게 된 죄인’이 되었다.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posse non peccare*: be able not to sin)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에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으며(요일 5:18),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롬 8:37, 요일 5:4)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non posse peccare*: not be able to sin), 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게 된다. 그 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낙원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며,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낙원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고 장차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아름다운 낙원을 소망하고, 오늘도 주님의 백성답게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서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1. 당신의 삶 속에 죄성이 있으며 그 결과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2. 인성의 기원에 대해 동양에서는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다. 당신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 당신은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말하는 구조와 방향의 차이에 관해 다른 예를 들어 보라.
5. 당신은 세상의 모든 문제들의 뿌리에 죄가 있다는 성경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6. 당신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뒤틀린 세상이며, 깨어진 세계라는 사실에 동의하는가?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04 구속_ 우주적인 회복

주님의 나라로 소속을 옮기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후에 바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세상의 악의 문제에 대해 성경은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의 타락에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궁극적인 해결을 필요로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이 구속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다.

먼저 ‘구속’이란 ‘죄 사함’이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 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골 1:13~14)

그것이 ‘구속’, 즉 죄 사함이라고 말씀한다. 여기서 암흑의 권세란 죄악의 권세를 상징한다. ‘구속’(Redemption, die Erlösung)이란, 문자적으로 ‘빚을 갚는다’는 의미가 있다. 한 사람이 도저히 갚지 못할 빚을 져서 그 채권자의 종이 되었는데 제3자가 나타나 그 빚을 모두 갚아 주고 그 종 된 사람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도 한 때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사태로 외채 상황이 악화되어 거의 파산지경에 이르렀으나 IMF의 긴급 구제 금융과 채권국들의 상환 연기 조치로 긴급한 위기에서 벗어났던 적이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용서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한다.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주님께서 다 갚아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신 것과 주님의 나라로 소속을 옮기셨다는 앞의 말씀은 모두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만일 구속이 우리의 힘이나 선행에 좌우된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이 어느 정도라야 확실한지 그 기준을 설정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노력과 제도적 장치에 의해 세상의 악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가 결국 진정한 해결 방법이 되지 못했음을 역사는 보여 준다. 공산주의 유물론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마르크스는 외쳤다. 하지만 공산주의 혁명은 그 과정에 수많은 무고한 인명을 희생시켰고 결국 독재 정치로 귀결되어 더 큰 제도적인 악을 낳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이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죽으심에 근거해 있다면 그것은 가장 확실한 것이다.

동시에 구속은 다른 말로 ‘회복’(restoration)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에피테제’(Epithese)를 들고 싶다. 에피테제란 신체의 일부 특히 귀, 눈, 코 등 얼굴 부분이 사고나 질병으로 손상 또는 절단되었을 때 그 부분을 실리콘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거의 완벽하게 재생하는 것을 말하는 독일어로 어원은 ‘붙인다’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varepsilon\pi\iota\thetaεσις$)에서 온 단어로 한글로는 ‘안면 보철’이라고 한다. 물론 실제 피부는 아니지만, 가령 눈이나 귀가 하나 없는 환자에게 이 에피테제를 해 주면 그동안 집안에만 숨어 있던 분들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삶에 활기와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그림 19).²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유사한 사역을 하신 적이 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쳐서 잘랐지만 다시 붙여주신 것이 에피테제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요 18:10)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새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이다.

²⁸ 실제로 독일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신 한국인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choi-epithetik.com 참조. 이에 관한 동영상은 www.youtube.com/watch?v=FCaORbfPoiQ, www.youtube.com/watch?v=ExdWoyZchD4, www.youtube.com/watch?v=oGC6MNYXRHQ&app=desktop 참조. 도서는 최창학, 한성익, 한정혜, 『이제야 나도 사람 사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서울: 한국에피테틱 연구소, 1998).

그림 19

또한 구속은 동시에 ‘화목’(Reconciliation, die Versöhnung)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원래의 아름답고 조화로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왜곡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화해된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2차 대전이 끝난 후 독일은 주변국들과 화해하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로타 크라이식(Lothar Kreyssig, 1898~1986)이라고 하는 동독 출신 변호사의 주도로 독일개신교회가 실시한 ASF(Aktion Sühnezeichen Friedensdienste: www.asf-ev.de)라고 하는 평화봉사단 운동이 있다. 이것은 독일이 양차 세계대전에서 지은 범죄를 인정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의 여러 나라에 전후 세대 청년들이 가서 봉사하는 제도이다. 매년 약 180여명의 청년들이 갔으며 이스라엘과 미국에도 가서 봉사했는데 그 이유는 훌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주로 이 두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크라이식은 동독 개신교인으로 나치시절인 1934년에는 히틀러에 저항하던 고백교회(Bekennenden Kirche) 회원이었고 1935년에는 작센 주 고백교회 노회장이었다. 그는 나치시절 안락사에 반대하다 법관직을 잃었다. 2차 대전 후 그는 1958년부터 평화봉사단을 만들어 화해의 사도로 활동하면서 독일 청년들이 과거 독일과 싸운 나라들에 가서 용서를 구하며 봉사활동을 하여 진정한 속죄를 함으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야 함을 역설하자 수천 명의 독일 청년들이 자원하여 여러 나라에서 봉사하였다. 이처럼 그는 전후 독일과 이웃 나라들이 화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지금도 이 봉사활동은 지속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보면 이 운동은 인종주의, 차별 및 사회적 배척에 대항하여 화해와 평화를 위해 헌신해 왔다고 하면서 최근에는 보다 장기적인 국제 평화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평화봉사단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다른 문화들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른 사고 및 행동방식들도 경험하며 수용하는 것을 추구한다. 최근에는 자원봉사자들

이 보다 더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관용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20).

그림 20

나아가 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독일 교회들 중에 ‘화해 교회(Versöhnungskirche)’라는 이름이 매우 많아 드레스덴 등 여러 도시에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1). 그리고 독일의 신학 중에 ‘화해의 신학’이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평화봉사단 운동도 서독의 개신교에서 시작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림 21

나아가 2차 대전 후에 서독에서 기독교 민주당(CDU)을 창설하여 초대 총리로 라인 강의 기적을 일으킨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 1876-1967)도 진정한 화해자였다. 그는 1951년 9월 국회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했는데 서독 정부는 홀로코스트로 사망하거나 고통 당한 유대인들을 위해 이스라엘에게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 결과 1년 후인 1952년 9월 10일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과 서독 간의 보상협정(Wiedergutmachungsabkommen)이라고 한다.

1953년 3월 27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어 서독은 14년간 30억 마르크라는 거금을 지불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독립 후, 아랍과 전쟁하면서 경제 위기 및 대량 실업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서독의 보상금은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가령 1956년 이스라엘의 국고 수입 중 서독 정부가 제공한 자본이 87.5%를 차지했다고 한다. 또한 서독 정부는 자본 외에 기차, 자동차, 광산 장비 등 각종 기계들도 현물로 지원했다. 지금도 독일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마다 과거사에 대해 사죄하며 유대인 희생기념관에 참배하는 등 진정한 화해의 노력을 보여 왔기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과 독일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다.

나아가 서독 정부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전쟁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는 법안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를 BEG(Bundesentschädigungsgesetz)라고 한다. 이 법은 유럽 여러 나라들에게 집행되었고 심지어 1941년에 중립국이었지만 폭격을 당한 아일랜드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지난 2016년 말까지 독일 정부가 지급한 보상금 총액은 가히 천문학적 숫자인 74조 5130억 유로(한화 약 9경 6,867조)이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²⁹ 독일이 통일의 축복을 받은 것은 이렇게 화해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1913~1992) 전 서독 총리는 나치시절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히틀러에 저항하는 정치활동을 하다가 1949년 9월에 서독으로 돌아와 1961년부터 8년간 서베를린 시장을 역임했다. 1969년부터 1974년까지 총리로 재임하는 동안 중부유럽 공산주의 국가들과 화해를 시도하는 동방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노벨 평화상을 받은 1971년 이전인 1970년에 폴란드를 방문하여 바르샤바의 전쟁 희생자 비석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했다(그림 22).

그림 22

당시에 폴란드 국민들은 서독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브란트 총리가 비가 오는 낮에도 아랑곳 않고 전쟁 희생자 비석 앞에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이며 진정으로 눈물 흘리는 것을 TV 생중계로 지켜본 폴란드 국민들은 서독에 대해 나쁜 감정을 털어낼 수 있었다. 더구나 브란트 총리 자신이 나치정권의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폴란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사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사과를 했다"면서 감동했다.

나아가 독일의 학교에서는 역사 교육 시간에 반드시 1, 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이 잘못한 것을 학생들에게 분명히 가르친다.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는 홀로코스트 유대인 생존자들을 초대하여 전체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 놓고 이 분의 생생한 체험을 경청하기도 한다. 이만큼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

²⁹ de.wikipedia.org/wiki/Deutsche_Wiedergutmachungspolitik#Summe

성하는 독일인들의 진정성은 전 세계인들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이다.

또한 독일의 도시에서 길을 걷다 보면 보도블록에 청동으로 글들이 새겨진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당시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2차 대전 중에 강제노동수용소에 끌려가 고통 당한 기록임을 알게 된다. 그 분의 이름과 생일 그리고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간략히 새겨 놓았다. 독일은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기 위해 여러 곳에 추모공원을 세우고 유대인 기념관도 건립했지만 동시에 일반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곳에 이런 작은 청동사각형을 박아 놓고 아무도 제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독일어로 ‘Stolperstein(슈톨퍼슈타인)’이라고 한다.

그림 23

이 기념석은 독일의 예술가인 군터 덴니히(Gunter Demnig)라는 분이 만든 것인데 가로, 세로, 높이가 10cm로 나치에 의해 희생된 모든 개개인을 의미한다. 그는 1992년 나치에 의해 희생된 분들을 기념하는 50주년 행사에 처음으로 이 기념석을 퀼른 시청 앞에 설치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였다. 이 기념석은 강제로 삶의 터전을 박탈당한 분들이 이전에 살거나 일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이 기념석은 물론 독일에 제일 많고 지금도 계속해서 유럽 여러 나라로 확산되어 약 4만개가 있다. 과거에 잘못한 역사를 철저히 반성하면서 잊지 않도록 그것을 일상생활에 하나의 예술품으로 승화한 독일인들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년 후인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공식적으로 통일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역사를 직시하고 전후 청년들을 평화봉사단으로 보내어 화해를 추구하고, 피해를 당한 나라들과 개인들에게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지불하며 물질로 지원하면서 심지어 매일 걸어 다니는 길에 영구적인 기념석을 설치하는 등, 전 세계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을 보인 동시에 동독에 대해서도 화해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독일은 통일된 나라인 동시에 전 세계에 화해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는 선진국이 되었다.

나아가 구속이란 ‘갱신’ 또는 ‘새로움’(Renewal, *anakainosis*)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새로움은 단지 사람들만이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전 피조계가 새로워짐을 의미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후 5:17)

사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질적으로 새로워진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한다.

또한 구속이란 병에 걸려 아프다가 건강을 회복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가 다시 안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창조는 건강하던 상태였고, 타락 이후 모든 만물은 병에 걸린 상태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그 병에서 회복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이 단지 우리 개개인을 향한 개별적인 구원일 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회복을 뜻함을 알 수 있다.

인간의 타락이 우주적이면서, 피조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역시 우주적이며 결정적이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되었고 회복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면 단지 우리의 영혼만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로워져야 한다(롬 12:2).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나아가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 계획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이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언약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다. 이것을 구속사(redemptive history)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래

의 그림처럼 표시할 수 있다.³⁰

제일 먼저 나오는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타락한 직후에 앞서 언급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바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³¹ 그리고 이 약속을 보다 확실하게 기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수치를 가리려 했던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 대신 가죽옷을 그들에게 지어 입히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담의 후예 특히 셋의 자손들은 바로 이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공식적으로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다(창 4:26~27).

이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면서(창 9:9~17), 더 이상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 주셨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포함했다는 사실이다. 이 무지개는 노아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증거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상징이 되었다.³²

여기서 무지개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원래 무지개라는 말은 매우 아름다운 순우리말이다. 한자로는 무지개 ‘홍’虹을 쓴다. 그런데 이 ‘무지개’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물’과 ‘지개’의 합성 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지개’는 등에 짐을 질 때 사용되는 ‘지게’가 아니라 제주 지역에서 ‘지개문’이라고 말하는 ‘짝문’(오른쪽과 왼쪽의 두 문짝으로 이루어진 문)을 뜻한다. 그런데 이 문의 특징은 윗부분이 대개 무지개의 윗부분처럼 둥근 타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지개를 ‘물로 된 문’이라고 한 것으로 추정한다.

³⁰ 이 부분은 O. Palmer Robertson, *The Christ of the Covenants*, (Phillipsburg: P & R, 1980) 참조.

³¹ Robertson은 이 언약을 The Covenant of Commencement(시작의 언약)이라고 부른다. 위의 책 93 참조.

³² Robertson은 이 언약을 The Covenant of Preservation(보존의 언약)이라고 부른다. 위의 책 109 참조.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로 무지개는 전쟁의 무기인 ‘활(הַלֹּבֶן the bow)’을 가리킨다. 실제로 무지개는 마치 화살을 당긴 활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무지개를 뜻하는 서양 언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한다면 대부분 ‘비의 활’을 뜻한다. Rainbow라는 단어도 비를 뜻하는 Rain이라는 낱말과 활을 의미하는 bow가 합쳐진 말이며 독일어(Regenbogen)나 화란어(regenboog)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보통 활이라고 하면 우리는 전쟁을 생각하게 된다.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비의 활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화살도 없고 활을 탄력 있게 해주는 줄도 없다. 활만 가지고는 아무런 해를 줄 수도 없다. 나아가 이 비의 활 무지개는 세상을 향해 굽은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굽은 활이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무지개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활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히브리어로도 무지개는 ‘천체의 중앙인 하늘 끝을 향해 시위를 당긴 형태의 활’이라는 의미가 있다. 천상의 극(極)을 향해 화살이 당겨져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다. 즉 활의 모습은 인간의 반역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시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겠다는 놀라운 은총의 표현이다. 달리 말하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기 저주(自己詛呪, self-malediction)를 가리키는 은총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다.³³ 결국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활에 맞으셨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혔고 옆구리도 창에 찔렸던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금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은혜로운 아버지이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게

³³ 류호준 교수의 무지개성서학연구소 홈페이지(rbc2000.ivyro.net) 참조.

된다.³⁴

나아가 이 축복은 모든 민족에게 미친다. 바로 그 구속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를 부르시고 축복하시면서 그의 자손이 번성하고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받겠으며 그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창 12:1~3; 13:14~17; 15:1~21; 17:1~21). 그 약속은 마침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이삭을 그 가정에 주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사인으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다. 남자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마침내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들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업을 상속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할례는 다시 세례로 바뀌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³⁵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와 그와 함께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다.³⁶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신 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 주어진 삶의 기준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삶의 원칙으로 주신 것이다. 이 십계명을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만들어 성막의 지성소에 두게 하셨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을 담았으므로 ‘언약궤’(the ark of the covenant)라고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들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동시에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고 그 결과 메시아의 구속을 소망하

³⁴ 참고로 독일 쾨른(Köln)에서 매년 2월말 내지 3월초에 개최되는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의 선교 집회인 missionale의 로고는 무지개 십자가이다.

³⁵ Robertson은 이 언약을 The Covenant of Promise(약속의 언약)이라고 부른다. 위의 책 127 참조.

³⁶ Robertson은 이 언약을 The Covenant of Law(율법의 언약)이라고 부른다. 위의 책 1167 참조.

며 살았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을 확증해 주셨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6절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 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십계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마침내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사도 베드로에 의해 다시금 교회의 사명으로 강조되고 있다(벧전 2:9).

나아가 이 모세 언약의 상징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출 31:13)

“또 나는 그들에게 안식일도 정하여 주어서, 이것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였다.” (겔 20:12)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 되어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여라’ 하였다.” (겔 20:20)

물론 이 안식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되어 주일로 승화되었지만 우리가 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기억하는 언약 갱신의 의미는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셨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삼하 7:16)

물론 다윗의 왕국이 문자적으로 영원히 이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다. 하지만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하며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³⁷ 그리고 이 언약의 상징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왕관을 상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이 모든 구약의 언약들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된다.³⁸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미리 예언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 주며 그들의 마음 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렘 31:31~34)

³⁷ Robertson은 이 언약을 The Covenant of Kingdom(왕국의 언약)이라고 부른다. 위의 책 229 참조.

³⁸ Robertson은 이 언약을 The Covenant of Consummation(완성의 언약)이라고 부른다. 위의 책 271 참조.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이 잔은 우리들과 세우는 새 언약으로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에서 구속함을 입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고전 11:25)

그러므로 이 언약의 상징은 ‘잔’(cup)이라고 말할 수 있다. 피로 세웠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맷은 언약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이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도 생명을 걸고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헌신의 의미도 포함한다.

따라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언약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결국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심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기에 신·구약 성경이 만나는 초점이 되며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신다(그림 24).

그림 24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피조계를 십자가의 보혈로 화평을 이루어 회복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란 어느 일정한 공간적인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모든 영역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언약의 핵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가 정립된 것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 언약, 그리고 우리의 구속은 서로 긴밀한 연관이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종합적으로 잘 보여 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비유들이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여 준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의 마음 상태와 반응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 밭과 같이 굳어 있거나 아니면 돌밭이나 가시밭과 같이 여러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에는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옥토와 같이 좋은 밭이면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두 번째 비유인 ‘가라지’의 비유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는 반드시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하지만 이러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가르쳐준다.

세 번째 비유인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롭게 성장하고 ‘확장’됨을 가르쳐 준다. 전자는 천국의 양적 성장을, 후자는 질적인 성숙을 보여준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처음 시작은 미약한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크게 자라게 되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우쳐 준다. 전자는 우연히 발견한 경우이지만 후자는 의도적으로 찾고 또 찾다가 마침내 발견한 경우를 말한다.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살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가장 귀한 보화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나 ‘수확’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 ‘완성’을 보여 준다. 좋은 생선은 모으지만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지만 쪽정이는 불에 사를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악인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다섯

가지 비유들을 마치 퍼즐과 같이 모두 합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전체 그림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을 보여 주신 예수님의 사역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임하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애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가르쳐 주셨고 나아가 그것이 현재적으로 임했음을 실제 여러 가지 표적으로 보여 주셨다. 마태는 이것을 그의 복음서 9장 35절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 주셨다.” 즉 회당이라는 소그룹에서는 질문도 받으시면서 구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고, 대중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였으며, 개인들을 만나 사역하실 때에는 질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셨다. 따라서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심으로 죄의 세력이 심판을 받고 타락한 세상이 회복되는 역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 주셨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단지 그 분의 전능하심을 보여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한다. 즉,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모든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을 보여 주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병이나, 귀신이나,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의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 그 위로 걸어 오셔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을 위로해 주신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은 세상의 혼돈과 죄악의 문제들을 다 평정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모습이다. 나아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고도 남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배고픔이나 목마름 등과 같은 부족함이 없고 영육 간에 풍성한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현재 그들과 함께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현재적으로 임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말론적 긴장관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동시에 미래성도 보여 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already)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다는(but not yet)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나라는 완성된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맛보는 동시에 미래에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인들이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마치 아기를 가진 임산부에 비유할 수 있다. 분명히 새 생명이 어머니 태중에 있지만(현재성) 아직 아기가 태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미래성).

성경을 자세히 보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단지 ‘세상의 끝날’이라는 의미로 쓰지 않다. 오히려 종말이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중간 기간 전부를 의미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다. 죄의 상징인 뱀의 머리가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부서졌지만 사탄의 세력이 아직도 꿈틀거리며 역사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옛사람의 세력과 새 생명의 세력 간에 갈등을 느낀다. 이것을 필자는 ‘종말론적 긴장관계’(eschatological tension)라고 부른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탄식이다.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한다”는 실존적 고백이다(19절).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사도 바울의 회심 전의 고민이라고 주장하지만 문맥상 6장에서 성화를 언급한 후 다시 회심 전의 갈등을 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8장과 연결시켜 볼 때 이것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솔직

히 토로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실존적으로 느끼고 고백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히 구원의 축복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넘어지고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회복의 은총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

승리하며 사는 비결은?

그렇다면 이러한 종말론적인 영적 전투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분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응답이다. 성령께서 왜 오순절에 임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취’(accomplishment)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제 각 개개인에게 ‘적용’(application)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³⁹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calling)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이다. 다음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이제 거듭나게 된다(regeneration).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된다(faith & repentance). 그런 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justification).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adoption).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성령을 ‘양자(養子)의 영’이라고도 말씀한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성령께서는 그의 평생 동안 성결하게 하신다(sanctification).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더욱 의에 대해 살게 하시는(vivification) 면과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게 하시는(mortification) 사역이다. 또한 마치 부모들이 자식들을 연단하듯 우리들의 삶이 진정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훈련시키신다(perseverance). 이 세상과

³⁹ John Murray,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 (Grand Rapids: Eerdmans, 1987).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빛과 소금의 삶, 왕 같은 제사장의 삶, 신령한 주님의 사람들로 성화시키신다. 또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 힘들 때 새 힘을 주시고 지쳐 쓰러질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격려해 주신다.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으로 감화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 속에서 함께 일하신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도록 은사를 주시고 서로 주님의 몸을 세우며 천국 복음을 확장하도록 선교의 영으로 역사하신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심으로(glorification)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 바로 이것이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⁴⁰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역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교회의 주인이시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동시에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탄생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는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으며 무서운 박해도 이겨냈고 주님의 몸으로서 서로 지체가 되어 돌아보며 섬기는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간 것이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땅 끝까지 이르게 되고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혜롭고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게 된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가장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영원토록 나누게 된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그림 25). 먼저 밑의 선은 이 세대의 선이다. 이 선은 창조에서 시작되었으나 타락을 거쳐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현재의 피조계를 의미한다. 그 위에 있는 선은 하나님 나라의 선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 선은

⁴⁰ 이것을 ‘구원의 서정(*Ordo Salutis*, the order of salvation)’이라고 한다.

예수님의 초림에서 시작되어 재림 이후에도 영원토록 계속된다. 현재는 이 두 선이 공존한다. 그리고 이 두 선은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대립관계(antithesis)이다.

그림 25

구약 시대는 창조로부터 예수님의 초림 직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림자요 예표였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reality)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초림을 D-day, 재림을 V-day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2차 세계대전 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비유한 것인데 D-day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개시일을 의미하는 결정적인 날(Decision Day)이며, V-day는 독일이 항복하여 연합군이 최종 승리한 날(Victory Day)을 뜻한다.⁴¹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뱀의 머리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 부서진 것이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속은 이미 성취되었다. 그러나 아직 뱀의 꼬리는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 남은 세력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재림에 의해 완성될 때까지 지금도 은밀하게 성장하고 있다.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 비록 가라지가 집요하게 방해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에 의해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신비롭게 자라간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러하다.

⁴¹ 이러한 표현은 독일의 신학자 Oscar Cullmann이 그의 책 *Christus und die Zeit: die urchristliche Zeit- und Geschichtsauffassung* (Evangelischer Verlag A.G., 1946)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Christ and Time: The Primitive Christian Conception of Time and History*, trans. Flyod V. Filson (Philadelphia: Westminster, 1964), 84.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종류의 세계에 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지만 아직도 죄악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다. 이 세상에 살지만 본향은 하늘나라인 이중 국적자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시작된다.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의해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성령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요 1:12).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롬 8:15). 이것은 논리적인 면에서 볼 때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려고 할 때 그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다.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자라고 있지만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또는 사탄의 유혹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도우신다. 이것 또한 성령의 성화케 하시는(sanctification) 역사인 것이다.

이 성화는 죄에 대해 점점 죽어지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나는 과정이다. 물론 항상 승리하지는 못한다. 사도 바울도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 따라서 성화는 인간의 노력 100%인 동시에 성령의 사역 100%의 합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연단의 과정도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

성령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확인 도장과도 같다고 성경은 말한다(엡 1:13~14). 마침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롭게 변화되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완성인 영화(glorification)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실제적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수고하시는 모든 주님의 종들에 의해 조용히 성장하고 있다.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의해 펍박도 받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며 심지어 생명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구속적인 경륜은 그분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겸손히 섬기시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나라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 이 엄청난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주님을 경배하게 되었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 지상의 교회는 동시에 천상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을 섬긴다.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의 공동체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귀한 모임이다.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이 지상의 교회도 온전해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광스러운 축복의 삶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드리는 삶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섯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보겠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력(dynamic)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인한 것이다. ‘오직 은혜’(*Sola Gratia*)를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의 입장과 일치한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goal)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Soli Deo Gloria*)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 성도들의 삶의 동기(motive)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Sola Fide*) 살아가는 것이다.

넷째, 신앙인의 삶의 터전은 항상 ‘*Coram Deo*’, 즉 하나님 앞에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Sola Scriptura*)으로서 이제 구원함을 받은 성도답게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킹덤 스타일(Kingdom style)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한 때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던 노래 ‘강남 스타일’과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 내용은 사실상 윤리적으로 건전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된다. 삶의 동력이 인간의 노력이며 목적은 더 많은 인기를 얻는 것이고 동기 또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자신이 대중들 앞에서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삶의 기준 또한 자신의 생각이라면 아무리 말춤을 추며 신나게 즐길지라도 그 노래가 담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무비판적으로 추종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였던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 1576~1633)는 좋은 삶(*euzoia*)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드리는 삶”(*Theozoia*)에서만 발견된다고 했다.⁴²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구원받은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이 귀한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⁴² William Ames, *The Marrow of Divinity* (Grand Rapids, MI: Baker 1968), 78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1. 당신은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구속의 의미, 구속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보라.
3. 우리의 삶 전체가 구속되어야 한다는 성경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4.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5.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분만이 구속자라고 주장하는 성경이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는가?
6. 구속에 대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면이 다른가?
7.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종말론적 긴장 관계’를 가지고 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3부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다

To Him are all things

05 완성_ 영광스러운 비전

앞에서 우리는 세계의 시작인 창조와 모든 문제의 근원인 타락, 그리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구속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소망, 만물의 최종 완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네덜란드의 카이퍼가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한 이후 도여베르트의 저작들을 비롯해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관을 다룬 문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창조, 타락, 구속만 언급하고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구속의 일부로 보거나 아예 간과한 경우도 적지 않다.⁴³ 완성 부분을 독립적으로 다룬 것은 필자가 아는 한 휴 웨ﾙ첼(Hugh Whelchel)이 간략히 언급한 것 외에는 거의 없다. 웨ﾙ첼의 책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복음적으로 간략히 언급한 소책자이며 따라서 창조, 타락, 구속 후 완성을 회복의 관점에서 4 페이지 정도로 매우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⁴⁴ 하지만 완성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구속과 완성 사이에는 연속성도 있지만 비연속성도 분명히 있으며 특히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만물의 과거, 현재 및 미래에 대해 로마서 11장 36절 상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장 잘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에서 완성을 생략한다면 만물이 그를

⁴³ Herman Dooyeweerd, *Vernieuwing en Bezinning om het Reformatorsch Grondmotief*, (Zutphen: J. B. Van Den Brink & Co.1963), 28-38; 양승훈, 『기독교적 세계관』;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경』(서울: IVP. 2005); 송인규, 『새로 쓴 기독교, 세계, 관: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과의 만남』(서울: IVP. 2008); Albert M. Wolters,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Grand Rapids: Eerdmans, 2005); B. J. Walsh & J. R. Middleton, *The Transforming Vision: Shaping a Christian World View*, (Grand Rapids: Eerdmans, 2005); M. W. Goheen & C. G. Bartheolomew, *Living at the Crossroads: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ldview*,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⁴⁴ H. Whelchel, *All Things New: Rediscovering the Four-Chapter Gospel*, (McLean, VA: The Institute for Faith, Work & Economics, 2016).

위하여 있고 그에게 돌아간다는 미래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역사관과 시간관을 통해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도 완성은 필수불가결하다. 또한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다섯 가지 비유 중 시작 이후 어떻게 끝나는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나오므로 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완성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고찰하되 먼저 이 부분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관해 배경적인 내용을 다룬 후 완성에 대해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언약의 완성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누릴 영원한 축복이라는 네 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성경 신학적 방법론(biblical theological method)을 사용하여 각 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의미를 도출하고 주제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성경신학적인 방법론은 각 본문에 대해 주제하면서 성경전체적인 흐름을 통해 그 의미가 어떻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지를 고찰하는 방식이다. 그 후에 결론적으로 이 완성의 비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속과의 연속성과 비연속성 간의 관계를 진술하겠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요한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다. 계시(Revelation, 독어로 Offenbarung, 네덜란드어로 openbaring)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에 대해 먼저 부담을 느낀다.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책, 매우 조심스럽고 상당히 두려운 책으로 생각하는 선입관이 있다. 하지만 사실은 계시록을 그냥 덮어두고 매우 신비로운 책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주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야 하는 책이며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분명히 말한다.

둘째로 동시에 이 요한계시록은 ‘성전’(聖戰), 즉 거룩한 전쟁의 책이다. 이것은 총이나 칼과 같은 무기로 싸우는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 간에 치

열한 갈등과 영적 대결을 뜻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승리하고 모든 악의 세력들은 결국 멸망하고 심판 받는다는 것을 미리 보여 주는 책이다.

셋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나아가 ‘위로와 격려’의 책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보증하셨기 때문이다. 당시 세계 최강인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제국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기독교 국가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위기나 환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심을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⁴⁵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도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시작되어 교회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순교했고 많은 성도들도 체포되었다. 당시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구순의 노사도 요한도 결국 체포되어 끓는 기름 가마 속으로 던져졌다고 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몸이 전혀 상하지 않자 로마 군인이 놀라 다시 그를 꺼내었고 로마 황제는 이 사도를 가까운 밧모섬으로 유배를 보낸다.

이 밧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다른 죄수 노예들과 함께 하루 종일 바위를 깨는 노역을 하게 된다. 이 일이 너무 힘들어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해주었다. 이 소식이 밧모섬을 다스리던 로마 감시대장에게 보고되었는데 얼마 후 그의 처남이 귀신에 사로잡혀 병들게 되자 이 감시 대장은 사도 요한을 초청하여 기도를 부탁했다. 그의 간절한 기도에 귀신은 떠났고 이 아이가 다시 건강하게 되자 그 식구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후 감시 대장은 사도 요한에게 더이상 노역을 시키지 않고 섬

⁴⁵ 김주찬, 『밧모섬에서 돌아온 사도 요한』(서울: 옥합, 2004).

남쪽 중턱에 있는 동굴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한다(그림 26).⁴⁶ 그리고 그의 옆에는 예루살렘교회의 집사 출신인 브로고로가 있어 이 노사도의 시중을 들었다. 사도 요한은 그 때부터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어느 주일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종말의 계시를 보여주셨다. 이것을 브로고로를 통해 기록한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어 성도들을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다. 이 섬에 약 1년 반 정도 머무는 동안 이 노사도는 이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했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어 결국 이 섬 전체가 복음화 되었으며 나중에는 풀려나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사역하다가 여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6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머물던 동굴 외부 및 내부)

넷째, 요한계시록은 ‘찬양’의 완성을 보여주는 책이다.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 천하 만물이 새 노래로 찬양 드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책을 ‘신약의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핸델의 메시아 제 3부가 이 계시록을 중심으로 작곡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 있다. 특히 5장 13절을 보면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시편 148편의 완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영원토록 만물이 함께 하나님께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릴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성가대의 찬양이나 일반 찬송 및 여러 복음성가들을 부를 때, 이 찬양의 완성을 미리 맛보며 연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우주적 찬양과 예배의 완성을 요한계시록은 잘 보여준다.⁴⁷

⁴⁶ 지금도 밧모섬에는 이 동굴 유적지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⁴⁷ 미국의 루이 기글리오(Louie Giglio) 목사는 하늘의 별들에서 나오는 소리들과 바다의 고래 소리를 합성하여 ‘위대하신 주님(How great is our God)’ 찬양을 함께 부르는 예시를 보여준다.
www.youtube.com/watch?v=gdFnGumjANo

다섯째, 요한계시록은 ‘선교’가 완성된 모습을 보여 준다. 7장 9~10절에 사도 요한은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계 7:10)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 들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모든 열방들이 인종과 언어 및 문화를 초월해서 모두 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본 것이다.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비해 극소수에 불과했던 그리스 도인들에게 보여 주신 이 장면은 놀라운 비전이 아닐 수 없다. 복음이 상당히 편만하게 증거된 현대에 사는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별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점점 더 실현해 가심을 볼 수 있다. 결국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침내 완성하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따라서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을 보여 준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시련을 만나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앞서 말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 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신실하심을 보게 되며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침내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신 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거룩하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대한 이해와 함께 21장 1~4절을 보면 요한은 완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
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
문이다.”(계 21:1~4)

여기에 나타난 내용은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임마누엘의 완성 및 영원한 축복
이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제 이 네 주제들을 하나씩 성경 신학적 방법으로 보다 구체적으
로 고찰해보겠다.

새 하늘과 새 땅

먼저 1절에서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 하늘과 땅을 창
조하신 이후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
라를 완성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롭다’는 헬라어도 단지 시간적으로 새로움을 가리키는 ‘네오스
(νέος)’가 아니라 완전한 질적 변화를 가리키는 ‘카이노스(καινός)’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러한
신천신지에 대해 구약의 시편기자는 이미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다.

“그 옛날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
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햇수에는 끝이 없습니다.”(시 102:25~27)

우리가 입는 옷도 오래 되면 낡아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지금 하늘과 땅도 낡게 되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옷처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며(사 65:17) 이 신천신지는 영원할 것이고(사 66:22) 이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잃어버렸던 낙원의 회복임을 다음과 같이 예언한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 뱀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사 11:6~9)

신약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사역들은 단지 하나님 나라의 도래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 재탄생(cosmic palingenesis)을 보여 준다고 말할 수 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며, 배고픔이 더이상 없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이상 질병이나 악한 귀신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없으며 동시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풍성한 축복이 임할 것을 미리 보여 주는 것이다.

예수께서도 이 신천신지에 대해 이렇게 간접적으로 언급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마 5:18)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성취된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천지가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완성될 것임을 암시하기도 한다. 다음 구절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마 19:28)

또한 마태복음 24장 6~8절에 보면 예수께서 종말에 관해 예언하시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말씀한다(개역개정). 그런데 표준새번역을 보면 마지막 부분이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라고 조금 다르다. 여기서 ‘재난’과 ‘진통’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자는 전쟁, 지진, 해일, 기근 등은 말세가 가까웠다는 경고성 사인인 반면 후자는 임산부가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치러야 하는 산고를 뜻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이다. 그리스어 원문도 보면 8절의 “πάντα δὲ ταῦτα ἀρχὴ ὠδίνων”에서 “ὠδίνων”은 해산의 진통을 뜻한다(막 13:8 참조). NIV(New International Version) 성경도 “birth pains”, NASB(New American Standard Bible)도 “birth pangs”로 둘 다 재난의 의미라기보다는 진통의 뜻으로 번역하고 있다.

결국 이 예언은 종말론적 재난의 양면성을 계시한다고 볼 수 있다. 전쟁, 지진, 기근 등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재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더욱 분명하게 해 주는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기를 낳은 후 기쁨에 겪워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는 산모와 같이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고 현재의 피조물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완성을 간절히 고대하며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인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롬 8:19~22)

로마서 8장 22절을 개역개정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번역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원어는 말하고 따라서 표준새번역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 또한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 즉 구속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는데 여기서 이 신음도 산고의 고통을 뜻한다. 나아가 바울 사도는 종말론적으로 볼 때 이 새 창조의 질서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포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고후 5:17)

베드로도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후 담대하게 예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재림할 것을 이렇게 외쳤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행 3:21)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고 말한다. 왜 그런가?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먼저 구약의 출애굽기 15장 10절과 시편 46편 3절을 보면 바다는 무질서와 혼동의 상징으로 나온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은 심지어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한 짐승이 나온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다. 즉 이 모든 대적들을 제압하신다는 의미이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시 65:7)

“주님은 소용돌이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뛰노는 파도도 진정시키십니다.”(시 89:9)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사역하실 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이 두려워 떨자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막 4:39). 하지만 주님이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아예 바다가 없다. 즉 더이상 어두움, 무질서, 혼돈 및 죄의 가능성이 없고(*non posse peccare*) 오직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평화가 완성되는 곳임

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창조 시에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posse peccare*)였다가 타락 이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non posse non peccare*)로 죄의 노예가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다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posse non peccare*)가 되었고 마침내 처음 하늘 및 땅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 물론 구속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맛보며 체험하고 있으나, 미래에 이 신 천신지가 임할 때 완전해진다는 의미에서 구속과 완성 간에는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동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성

새 하늘과 새 땅을 배경으로 사도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옴을 보았다(21:2, 10). 거룩하신 주님으로부터 내려오기에 속된 것이 전혀 없는 성결한 도성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산 성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이 도성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해 보니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일만 이천 스타디온으로서 정육면체라는 것이다(그림 27). 왜 그런가?

그림 27

이 도시는 인간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것이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건축물이 두 개 나온다.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성막과 이 성막을 본 떠 만든 솔로몬의 성전이다. 그런데 이 성막과 성전에 정육면체 형태의 건물이 단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성소이다. 성막의 지성소는 각각 10규빗이고 성전의 지성소는 각 20규빗이다(출 26: 대하 3:8). 따라서 이 새 예루살렘은 구약의 지성소가 완성된 곳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오직 거룩한 주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화가 완성된 곳임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사도 요한은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 속된 것과 “개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한다(계 21:8; 21:27a; 22:15). 특별히 여기서 “개들”이란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무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도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을 예비하신 주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신 이후 다시금 성도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승천하게 하셨다. 이제 그 준비된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이 거룩한 성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데 이 새 예루살렘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성경에 나타난 예루살렘에 대해 살펴보겠다. 성경에 예루살렘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곳은 창세기 14장 18절인데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동시에 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람을 축복해 주었다. 그러자 아브람은 그가 가진 것 십분의 일을 예물로 멜기세덱에 준다. 여기서 멜기세덱이란 ‘의로운 왕’이란 뜻이며 그는 살렘의 왕, 즉 ‘평화의 왕’이기도 하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말한다(히 6:20). 이 사건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왕의 왕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예물을 드리며 경배할 것을 예표한 것이다.

그 후 여호수아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으나(수 15:63) 나중에 다윗 왕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삼하 5:6~10). 그 후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곳은 더욱 유대 민족의 영적 중심지가 되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성이기에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 믿을 정도였다.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이곳으로 모든 민족이 물밀듯 모여드는 환상을 보기도 했으며(사 2:2) 에스

겔 선지자도 비록 지상의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분명히 보았다 (겔 40~48).

신약 성경에도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들이 여러 곳에 나온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50~53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고 땅이 흔들리면서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려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한다. 여기서 거룩한 도성은 물론 예루살렘이다. 이 사건은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예표로 보여 준 것이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22~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면서 율법은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에 그리고 은혜는 본처인 사라에 비유한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 하갈은 시내산을 뜯하고 동시에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하고 있다. 그러나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뜻하며 은혜와 자유롭게 하는 복음에 속한 여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더이상 율법에 매인 종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로서 새 예루살렘에 속한 은혜의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강조한다(빌 3:20). 히브리서 기자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가 정들었던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며(히 11:10)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다고 말한다(히 11:16).

더 놀라운 내용은 히브리서 12장 22절인데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이른 시내산도 두렵고 떨리는 곳이었지만 성도들은 장차 갈 시온산, 즉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이미 종말론적으로

이르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성령 안에서 이를 미리 맛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장차 올 도시를 찾아 가는 순례자이다(히 13:14).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분명히 말한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지상의 예루살렘에 진정한 평화는 없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주시는 모든 축복들의 종합이 살롬(Shalom, מִלּוֹם)이다. 그러므로 아론의 축복도 ‘살롬’으로 끝나며(민 6:26) 부활하신 예수께서도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 살롬을 주셨다(요 20:19, 21, 26).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이 새 예루살렘은 살롬이 완성된 곳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다고 말한다. 성경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종 하나님의 아내로 비유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런 비전들을 보았고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너를 건축 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네 눈 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네 백성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온다. 나 주가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 신부가 패물을 몸에 치장하고 자랑하듯, 너는 네 백성을 자랑할 것이다.”(사 49:16~18)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사 54:5)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패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 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 거워할 것이다.”(사 61:10)

더 대표적인 예는 호세아서이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긴 이스라엘 민족을 호세아 선지자는 부정한 아내 고멜에 비유하면서 비판하는 동시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심을 선포했다 (호 4:13~14; 5:4; 6:6; 9:1).

“그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 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호 2:19)

신약성경에도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 즉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 예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도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었다(요 2:1~10). 이는 하늘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어린 양 혼인잔치를 미리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에도 천국을 혼인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다(마 9:15; 22:2이하; 25:1이하; 막 2:19이하; 요 3:29).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4절에서 성도들은 과거에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했지만 이제는 그 남편이 죽었고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그들을 순결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다”고 말한다(고후 11:2). 에베소서 5장 22~33절에도 부부간의 윤리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그 원형으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⁴⁸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결혼의 이미지가 주는 궁극적인 의미는 장차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누릴 가장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현재 맛보며 누리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새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완성된다는 것이다.

⁴⁸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영어에는 도시(city)라는 단어에 성(gender)이 없지만 유럽의 언어들 가령 독일어 (Stadt), 네덜란드어(stad) 그리고 불어(ville)에는 성이 있으며 모두 여성임을 알 수 있다.

드와이트 펜테코스트(J. Dwight Pentecost, 1915~2014)는 이런 의미에서 이 영원한 도성에서 누릴 성도들의 삶을 아홉 가지로 잘 요약했다. 첫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고전 13:12), 둘째,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삶(계 14:13), 셋째, 온전한 지식을 소유함(고전 13:12), 넷째, 거룩해진 삶(계 21:27), 다섯째, 기쁨의 삶(계 21:4), 여섯째, 섬김의 삶(계 22:3), 일곱째, 가장 부요한 삶(계 21:6), 여덟 번째, 영광스러운 삶(골 3:4)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히 주님을 경배하는 삶(계 19:1)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⁴⁹ 따라서 여기서도 구속과 완성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즉 이 미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현재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연속성이 있으나 그것이 완전히 거룩해진 미래의 새 예루살렘에서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점에서 질적인 비연속성도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하심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임마누엘 언약’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구약시대에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형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하심을 보여주셨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창 1:26~27). 이것은 마치 뛰어난 예술 작품 속에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의 혼이 들어 있는 것과 같다.

족장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반복하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항상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주

⁴⁹ J. Dwight Pentecost, *Things to Come: A Study in Biblical Eschatology*, (Grand Rapids: Zondervan Academic, 1964), 581~82.

님께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와 함께하시며 그를 도우심을 보고 인정했다(창 21:22). 이 삽도 마찬가지로 계속 우물을 팔으나 그랄 지방 목자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자 다투지 않고 양보한 후 브엘세바로 갔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창 26:24). 그러자 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 야곱 또한 형 에서를 속인 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그가 후에 벤엘이라 명명한 곳에서 잘 때 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받았다(창 28:15). 요셉도 비록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가고 여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했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게 됨을 알 수 있다(창 39:2). 이렇게 모든 족장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축복을 받게 될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실 것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80세 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출 3:2).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계시하신 바대로 성막인 장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을 완성했을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으로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그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찼다고 출애굽기 40장 34절은 말한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쉐키나’(Shekinah, שׁכִנָה)라고 한다. 또한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는데(출 40:36~38) 이것은 궁극적으로 성막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실 것을 미리 보여 준 것이다(그림 28).

그림 28

이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했을 때에도 다시 나타난다. 성전을 완공한 후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 버렸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찼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했다(왕상 8:10; 대하 7:1~3).

이후에도 많은 예언자들이 이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보았는데 이사야는 예루살렘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구름이 덮일 것을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주님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닫집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의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사 4:5~6)

에스겔 선지자 또한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가운데 있을 그때에야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 것이다.”라고 예언했다(겔 37:27~28). 에스겔은 그가 본 환상 마지막에서 이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샤마’라고 불릴 것이라 했는데(겔 48:35) 이는 ‘주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도성에 늘 함께할 것을 본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도 같은 비전을 보면서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네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때에야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고(슥 2:10~11) 그 결과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으로, 시온산은 ‘거룩한 산’으로 불릴 것이라고 예언한다(슥 8:3).

신약시대에는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하셨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마 1:23). 요한복음 1:14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고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그 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씀한다. 여기서 ‘사셨다’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쉐키나’의 동사형 ‘eskenosen(ἐσκήνωσεν)’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장막을 치신 사건이요, 따라서 이는 임마누엘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고 증거한다.

예수께서는 사역 중에도 이 영광을 보여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변화산상에서이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후 영광의 구름이 그를 덮었다(눅 9:29~35).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며 앞으로 십자가를 지게 될 수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영광을 미리 보여 줌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도들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가장 거룩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될 것이다(살전 4:17).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롬 8:18).

예수께서 제단, 성막 및 성전의 구체적인 실현이셨기에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성전을 자신의 육체에 비유하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성전의 휘장 문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친히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나아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게 되었다. 이전에는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므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한다(고전 3:16; 6:19)(그림 28).

그림 28

그런데 완성이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친히 장막을 치심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계 7:15). 그 결과 성경 전체를 통한 언약의 핵심이 완성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 시편 125편 2절처럼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듯, 주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으로 감싸 주실 것이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11절 이하에 나온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싸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 또 열두 대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계 21:11, 18~19a, 21)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에 함께 하시기에 새 예루살렘 안에 다른 성전이 있을 수 없다.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 도시에는 해나 달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혀 주며 어린 양이 친히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곳에는 구원 받은 여러 민족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 올 것이고 여러 나라 사람들은 각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곳으로 들여올 것이라고 말한다(계 21:22~26). 이것은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위한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구속과 완성 간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볼 수 있는데 창조 이후부터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구속을 통해 성육신으로 임마누엘하신 후 성령으로 지금도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연속성도 있으나,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된다는 점에서(고전 13:12) 구속과는 질적으로 다른 완전한 주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가장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시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 4절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누릴 영원한 축복을 이 세상의 고난과 비교하여 슬픔이나 고통 그리고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묘사하고 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초대 교회 성도들은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 거의 매일 순교자들이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먹이로 희생당하고 인간 횃불로 끌려갔기에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바로 이러한 문맥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의 열두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사도 요한의 표현은 더욱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원한 축복에 대해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먼저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민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풍성한 축복의 잔치를 베푸시면서 죽음의 상징인 수의를 없애 버리시고 모든 눈물을 깨끗이 닦아 주시며 세상에서 당한 부끄러움도 제거하실 것이므로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들은 마침내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사 25:6~9; 35:10, 51:11). 그 외에도 예레미야(렘 31:16), 스바냐(습 3:14) 및 스가랴(슥 2:10)도 같은 예언을 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신약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53절에서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에 대해 말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한다(계 7:17).

이러한 영원한 축복은 한마디로 샬롬이라 할 수 있다.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장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새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꾸미시며 항상 지켜 주셔서 영원히 혼들리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사야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너, 고난을 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흥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 흥보석으로 흥벽을 만들고, 석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네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역압이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니 너에게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 또한 사라져,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너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너에게 패할 것이다.”(사 54:11~15)

이 하나님의 도성은 결코 불안이나 공포 또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7일에 안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 축복과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안식을 누렸던 것과 같이 이 재창조의 세계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 바로 여기에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으며 만물의 최종적 완성의 비전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도 구속과 완성의 연속성 및 비연속성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미 시작되어 성도들이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맛보며 살아가는 연속성과 더불어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러한 축복을 완전히 누린다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점도 동시에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무리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그동안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완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깊이 고찰하였다.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에서 시작하여 완성으로 끝난다. 창조는 매우 좋은 상태(very good)로 시작한 것일 뿐(창 1:31), 최선의 상태(the best)인 완성은 아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구속의 언약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및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며 최상의 상태가 된다. 따라서 창조는 완성

을 가리키며 지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창조의 에덴동산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배경으로 한 새 예루살렘으로 발전되어 완성되는 것이다.

이 완성의 특징을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중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이며 새 예루살렘인 신부의 모습, 임마누엘 언약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원한 축복을 샬롬으로 고찰해 보았다. 이는 처음 하늘과 땅의 질서가 사라지고 새롭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도래했음을 의미하여 타락으로 인한 모든 왜곡과 죄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최후의 심판을 통해 모든 악의 세력들은 종말을 맞이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주님과 가장 깊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축복을 영원히 누릴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구속의 상황에서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든 노력들은 헛되지 않고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완성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중세시대 네덜란드의 화가였던 얀 판 아이크(Jan van Eik)가 15세기에 그린 아래의 것이다(그림 29).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하나님의 보좌에 어린 양이 보혈을 흘리고 있는데 그 밑에 새 언약의 잔이 있다. 이는 모든 언약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천사들이 경배하고 있으며 구속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에서 남녀노소 및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함께 나아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다.⁵⁰

그림 29

이처럼 완성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최종적인 정점에 해당하므로 구속과 구별하여 다루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구속과 완성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완성

⁵⁰ 원래 이 그림은 지금 벨기에의 겐트(Ghent)에서 가장 큰 성 바보(St. Bavo) 성당에 있는 제단화의 일부이다. 이 그림은 벨기에의 국보급일 뿐만 아니라 유럽 예술의 걸작품이며 세계적인 보물로 인정받는데 한 때 독일이 벨기에를 점령한 후 후퇴하면서 히틀러가 벨기에에서 훔쳐간 유일한 그림이었다. 하지만 연합군의 특수부대에 의해 다행히 이 그림을 되찾았고 나중에 이 특수 작전이 The Monuments Men이라는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된다는 점을 의미하며 비연속성이 있다는 것은 구속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 끝까지 확장된 점진적 과정이지만 완성은 최종적으로 완전해졌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1.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하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2. 성경이 말하는 완성의 모습 중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보라.
3. 새 예루살렘은 왜 지극히 거룩하고 평화로운 도시일까?
4.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원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5.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6. 당신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다음 세상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06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관은 삶이다’라는 명제 아래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을 다른 세계관들과 비교하며 살펴보았다. 성경은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마침내 새롭게 완성하신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만드신 후 그것을 보셨을 때 “매우 좋았다”(창 1:31)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면 그곳은 매우 좋은 정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곳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만일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고 진정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분의 사랑, 자비 그리고 은혜를 바로 알고 그 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만일 그 분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롬 8:31)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에 그저 깊이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빌 2:12)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롬 12:1~2).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 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시 73:24~25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에 힘쓰며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므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서로 위로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마라나

타)!”라고 고백하는 종말론적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최후 고백이 바로 이 ‘마라나타(Maranatha, Μαρανθα Θα)’이다.

이러한 소망, 즉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소망,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실 영광스러운 소망,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살롬의 소망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비전이다.

세상의 궁극적인 완성에 대하여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세계관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순환론적인 윤회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신의 업보에 의해 다음 세상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내가 얼마나 선을 쌓아야 다음 세대에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은 돌고 도는 세상, 의미 없이 반복되는 세상이므로 더 이상 다른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볼 때 인간이 스스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유-토피아(u-topia)’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는 역사를 통해 자신의 주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 주신 신실하신 그분의 구체적인 약속에 근거 하므로 가장 확실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을 바로 이해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이 만들어낸 또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세계관과 삶을 택할 것인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여러분은 이제 주를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만 섬기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를 섬길 것이오.”(수 24:14~15)

엘리야 선지자 또한 갈멜산에서 바알 및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백성들에게 이와 동일한 결단을 요구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왕상 18:21)

세계관은 삶이다. 어떤 세계관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그 결정은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한다. 당신의 최후 선택은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1.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계관에 대해 함께 나누었다.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나누어 보라.
2.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세계관과 삶을 택할지 결단하라고 하신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3. 만약 하나님을 따를 것을 선택했다면,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을 적용할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나누어 보라.
4.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 보라.

참고 문헌

1. 국내 서적

- 김주찬, 『밧모섬에서 돌아온 사도요한』, 서울: 옥합, 2004.
- 송인규, 『새로 쓴 기독교, 세계, 관: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과의 만남』, 서울: IVP, 2008.
-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IVP, 2005.
- 양승훈, 『기독교적 세계관: 세계와 삶에 대한 성경적 조망』, 서울: CUP, 1999.
- 전광식,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 서울: CUP, 1998.
- 최용준, “헤르만 도여베르트: 변혁적 철학으로서의 기독교 철학의 성격을 확립한 철학자”, 손봉호 외,
『하나님을 사랑한 철학자 9인』, 서울: IVP, 2005.
- , 『응답하는 인간』, 서울: SFC, 2008.
- 최창학, 한성익, 한정혜, 『이제야 나도 사람 사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서울: 한국에피테틱
연구소, 1998.

2. 국외 서적

- Ames, W. *The Marrow of Divinity*, Grand Rapids, MI: Baker 1968.
- Buijs, G. Blokhuis, P. Griffioen, S. Kuiper, R. (red.) *Homo Respondens: Verkenningen rond het mens-zijn*. Christelijk Wijsgerige Reeks 22, Amsterdam: Buijten & Schipperheijn Motief, 2005.
- Choi, Y. J., *Dialogue and Antithesis: A Philosophical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Herman Dooyeweerd's Transcendental Critique*, Amsterdam: Buijten & Schipperheijn, 2000.
- Clements, R. *Masterplan: How God makes sense of the world*,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94. 황영철 역,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서울: IVP, 1997.
- Cullmann, O. *Christus und die Zeit: die urchristliche Zeit- und Geschichtsauffassung*, Evangelischer Verlag A.G., 1946. *Christ and Time: The Primitive Christian Conception of Time and History*, trans. Flyod V. Filson, Philadelphian: Westminster, 1964.
- Dembski, W. A. *Intelligent Design: The Bridge Between Science & Theolog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9. 서울대 창조과학연구회 역, 『지적 설계』, 서울: IVP, 2002.
- Dooyeweerd, H. *Vernieuwing en Bezinning om het Reformatorisch Grondmotief*, Zutphen: J. B.

Van Den Brink & Co., 1963.

Geertsema, H. G. 'Homo respondens. On the historical nature of human reason.' *Philosophia Reformata* 58, (1993)

Goheen, M. W. & Bartheolomew, C. G. *Living at the Crossroads: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ldview*,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Kuyper, A. *De gemeene gratie*. (3 delen) Leiden: D. Donner, 1902-1904.

Marshall, P. A. Griffioen, S., Mouw, R. J., eds. *Stained Glass: Worldviews and Social Science*,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9.

Murray, J.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 Grand Rapids: Eerdmans, 1987.

Naugle, D. K. *Worldview: the history of a concept*, Grand Rapids: Eerdmans, 2002. 박세혁 역,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서울: CUP, 2018.

Pentecost, J. D. *Things to Come: A Study in Biblical Eschatology*, Grand Rapids: Academie Books, 1964.

Robertson, O. P. *The Christ of the Covenants*, Phillipsburg: P & R, 1980.

Sire, J. W. *The Universe Next Door: A Basic World View Catalog*,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88, 2nd ed. 김현수 역, 『기독교와 현대사상』, 서울: IVP, 2009.

----- *Naming the Elephant: Worldview as a concept*,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4. 흥병룡 역, 『코끼리 이름 짓기』, 서울: IVP, 2007.

Van der Walt, B. J. *Liberating Message: A Christian view for Africa*, Potchefstroom: IRS, 1994.

Van Peursen, C. A. *Cultuur in stroomversnelling*, Elsevier: Amsterdam, 1975.

Walsh, B. J. & Middleton, J. R. *The Transforming Vision: Shaping a Christian World View*.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84. 황영철 역, 『그리스도인의 비전』, 서울: IVP, 1987.

Warren, R. *Purpose-Driven Life*, Grand Rapids: Zondervan, 2013.

Whelchel, H. *All Things New: Rediscovering the Four-Chapter Gospel*, The Institute for Faith, Work & Economics, 2016.

Wolters, A. M.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Grand Rapids:

Eerdmans,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2005. 양성만, 흥병룡 역, 『창조, 타락, 구속』, 서울: IVP, 2007.

3. 인터넷 사이트

bethelpress.org/dailybread.php

de.wikipedia.org/wiki/Deutsche_Wiedergutmachungspolitik#Summe

en.wikipedia.org/wiki/Demiurge

en.wikipedia.org/wiki/Reparations_Agreement_between_Israel_and_West_Germany

ko.wikipedia.org/wiki/빌리_브란트

odb.org/2012/09/09/lesson-of-the-horse-mask

rbc2000.ivyro.net

www.asf-ev.de

www.bethel.de

www.choi-epithetik.com

www.girs.com/library/theology/syllabus/esc1.gif

www.jostiband.nl/concerten/repetities

www.stolpersteine.eu

www.youtube.com/watch?v=U7AGbgzfXis

www.youtube.com/watch?v=gdFnGumjANo

www.youtube.com/watch?v=FCaORbfPoiQ,

www.youtube.com/watch?v=ExdWoyZchD4,

www.youtube.com/watch?v=oGC6MNYXRHQ&app=desktop

youtu.be/MYTTHNkHH8M